

표지사진 / 운문사 범륜 부처님.

## 雲門僧伽大學

714-883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1789번지 雲門寺 편집부 (054) 370-7139 / 종무소 (054) 370-7100  
E-mail : unmoon@chollian.net / <http://www.unmunsa.or.kr>

[운문·계간] 겨울호·통권 제99호·2007년 1월 17일 발행·등록 1995년 3월 29일·등록번호 경북 바-01008  
발행처·운문승가대학 / 발행인·명성(전임호) / 고문·임진·편집·운문승가대학 문화부  
편집장·경석·편집위원·동우, 정안, 금륜, 제홍, 무아, 동준, 동환, 효중, 등광, 도혜 / 사진·우연  
컴퓨터·범중 / 편집디자인·憲 미디어 (02)2285-3366



날짜 2005.01.01  
제작자 운문승가대학  
작업번호 통권 제 99호

雲  
門



불기 2550년 겨울호 통권 제99호

# 雲門

## 목 차

호거산 운문사	2
죽림현	3
교수논단	4
깨달음으로 가는 길	6
차례법문	9
학인논단	10
후박향기	12
이 한권의 책	16
특별기획	18
선배탐방	20
想	24
특별기고 I	26
선사이야기	28
담소	32
특별기고 II	34
끝없는 여정	36
지금, 행복하십니까?	38
생활 속의 진언	42
수행의 두레박 I	45
II	46
III	48
운문논평	50
운문소식	52
입학공고	54
	55



마음속의 경전  
덕「후운사계절」이  
다시 오나니  
그 누가 이 마음속의  
경전을 알리  
노승이 홀로  
글자 없는 책을 펼친다  
소나무 그늘에 앉아  
이 한생 보내리라  
소오해 능스님 시를 절다  
호정이 영옥  
79



##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명성 / 운문승가대학 학장

한 해가 흘러갔습니다.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고 지나간 시간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나간 시간에 만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회와 아쉬움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돌이켜 보십시오. 운문사에 들어와 보낸 세월 동안 여러분들은 얼마나 수행에 진전이 있었습니까?

한 해 한 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나의 신심은 더 굳어지고 나의 지혜는 더 증장되고 미래를 향한 나의 희망은 더 밝아졌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만큼 이를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가게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조그마한 가게의 주인이 될 수 있고 큰 회사를 경영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큰 회사를 경영할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가게의 주인이 되기를 바란 사람이 큰 회사를 경영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마음에 새겨진 이상은 마음속에서 점점 자라나다가 때가 되면 구체적인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똑같은 땅에서 똑같은 햇빛을 받고 자나란 씨도 씨앗 속에 있는 이상에 따라 거대한 나무가 되기도 하고 부드러운 꽃도 됩니다.

우리 인간도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 즉 자기가 믿고 구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처가 되기를 바라는 자만이 부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며 지내기보다 지난 한 해 이루었던 일들을 생각하며 긍정적인 마음의 힘을 기릅시다.

지난 한 해 동안 도반들과 더불어 탁마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 글자라도 잘 알기 위해 애쓰면서 깨달음을 향해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갔다고 생각합시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노력하고 더 전진하겠다고 다짐하며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하도록 합시다. ♪

## 眞如緣起에 대한 고찰 Ⅱ

명성 / 운문승가대학 학장

### 목 차

1. 序 言
2. 眞如의 意義
3. 起信論의 眞如緣起說
  - (1) 緣起의 根源인 阿黎耶識
  - (2) 染法緣起
  - (3) 淨法緣起
4. 結 語

#### (2) 染法緣起

앞에서 말한 阿黎耶識中에 覺과 不覺의 二義가 있는데, 不覺義로부터 現象界의 諸法이 연기하게 되는 것을 염법연기라 한다. 그런데 이 不覺에는 根本不覺과 枝末不覺의 구별이 있다. 前者는 迷眞의 無明으로서 眞如 자체를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後者는 執妄의 無明으로서 진여를 진여로 보지 못하는 근본불각에 의하여서 阿黎耶識에 집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 迷界의 과정을 설명한 것이

이른바 三細六麤로서 곧 枝末不覺이다. 三細는 無明業相과 能見相과 境界相으로서 細라 칭한 까닭은 그 동하는 行相이 매우 미세하여 감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六麤라 함은 智相, 相續, 執取, 計名字, 造業, 受報(業繫苦)로서 이 六種은 麤顯麤雜해서 그 行相을 알기 쉬우므로 이것을 麤라 한다. 우리들 중생이 생사에 유전하는 최초의 기점은 진여의 이치를 여실히 보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있으니 이것을 근본무명이라 한다. 이 근본무명이 진여를 동요해서 三細六麤의 九相을 생기게 한다. 이 구상은 우리들 범부의 迷한 순서 즉 流轉門의 차체를 설명한 것이다.

첫째, 無明業相이란 不生不滅의 心眞如가 不覺無明에 의하여 동요를 시작한 初動의 相을 말한 것으로서, 아직 能所主客이 갈라지기 전인 迷界의 원시 상태이다. 즉 이 眞心의 起動은 不覺無明에 의한 것 이므로 論에 「以依不覺故 心動說名爲業」<sup>1)</sup>이라고 하였다. 둘째, 能見相이란 轉相이라고도 하는데 진여심이 起動해서 業相이 나타나면 이것이 一轉하면서 能緣의 主觀的인 見照의 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셋째, 境界相이란 現相이라고도 하는데 이미 心이 起動하면서 見照의 작용이 일어나면 여기에는 반드시 그의 대상인 경계상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것을 現相이라 한다.

이상 三細의 관계를 비유해서 말하면 業相은 鏡面과 같고 轉相은 경면이 물체를 照映하는 능력이 있는 것과 같으며 現相은 경면에 조영하는 능력에 의하여 外界의 사물을 映現하는 것과 같다. 요컨대 이 업상, 전상, 현상의 三相은 진여심이 무명에 동요되어 생한 것으로 주관의 작용을 세분한 것이다.

다음에 六麤中 첫째, 智相은 三細中의 境界相을 主觀的 心內에 影現된 虛影임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心外에 실재하는 것이라 집착하여 이에 대해서 染淨

善惡 是非邪正 好惡愛憎 등의 분별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전의 境界相은 心內에 나타난 法으로서 依他起性<sup>2)</sup>이라면 이 智相은 心內의 虛影을 인정해서 心外에 실재한 것이라고 분별하는 遍計所執性<sup>3)</sup>이다. 둘째, 相續相이란 앞의 智相에서 일어난 善惡是非 등의 妄分別이 상속하여 끊어지지 않는 것으로서 이는 麤顯한 分別起의 業執이다. 셋째, 執取相이란 앞의 妄分別의 相續에 의해서 苦樂의 경계를 집착하여 드디어 我執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이는 미세한 俱生起<sup>4)</sup>의 我執이다. 넷째, 計名字相이란 앞의 집취상이 점점 깊어짐에 따라 다시 여러 가지 名字言句를 세워 愛憎의 생각을 일으키는 것으로 이는 麤顯한 分別起의 我執이다. 다섯째, 造業相이란 앞의 계명자상에 의하여 苦樂怨親 등에 대해서 貪, 懶, 癡 등의 번뇌를 일으키며 身口를 통하여 善惡의 業을 짓는 것을 말한다. 여섯째, 受報(業繫苦)란 앞의 造業相에서 이미 지은 業因으로 받는 과보를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業力에 속박되어 생사에 윤회해서 자유롭지 못한 신체를 감득하는 상태를 수보라 한다. 이상에서 말한 삼세육추는 근본무명이 진여를 진여로 알지 못함에 의해서 迷界에 유전하는 染法緣起의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 (3) 淨法緣起

앞에서 말한 染法緣起는 진여로부터 염법의 현상계에 유전하는데 반해서 정법연기는 우선 진여에서 연기된 染法인 현상계로부터 生死를 轃어하고 涅槃

을 좋아하는 수행력으로써 염법의 세계를 벗어나서 진여계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 진여계로 돌아가는 데는 어떠한 과정을 밟아야 하는 것인가. 「起信論」에서는 앞에서 말한 染法緣起와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한 곳은 없다. 다만 阿黎耶識中에 一義인 覺義를 통하여 淨法緣起의 내용을 엿볼 수 있으므로 覺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生滅心의 本體인 眞如가 일체의 妄念을 여읜 것이 覚의 뜻으로서 이 覚에는 本覺과 始覺의 二義가 있다. 본각이란 우리들 범부도 본래는 불변절대의 心眞如를 스스로 구족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본래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는 迷하고 있으므로 이 본각을 발휘하자면 시각이란 단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시각이라는 것도 이것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불각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를 기신론에

「本覺義者 對始覺義說 … 始覺義者 依本覺故而有不覺 依不覺故說有始覺」<sup>5)</sup>

이라고 하였다. 우리들이 생사고해에 윤회하는 원인 이 무엇인가. 선천적으로 본래 구족한 本覺의 如來藏心이 한 조각의 無明 즉 根本不覺에 가리어서 이 不覺이 점점 자라나서 끊임없이 생사에 윤회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실을 초탈하려면 不覺을 퇴치하여야 하고, 이 不覺을 퇴치하려면 이 始覺의 작용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覺이라 하지 않고 本覺 또는 始覺이라 하는가. 우리들 범부의 妄心도 그 본성은 청정무구한 大智慧光明

2) 依他起性 … 唯識三性(遍計所執性, 依他起性, 圓成實性)의 하나, 자기의 원인만으로는 나기 어렵고 반드시 다른 緣을 기다려서 나는 物, 心의 모든 현상. 唯識論에 의하면 百法中에 94법은 여기에 팔림.

3) 遍計所執性 … 三性의 하나, 遍計는 이리저리 억측한다는 뜻 … 所執은 변계에 의하여 잘못 보이는 대상, 곧 주관이 색안경을 쓰고서 대상을 바로 보지 못하고 언제든지 잘못 분별하는 것을 변계소집이라 한다. … 비유하면 길에 놓여 진 노끈을 뱀인 줄 잘못 볼 적에 노끈은 所遍計, 뱀이라고 분별하는 마음은 能遍計, 그때 눈앞에 떠오르는 뱀의 그림자는 遍計所執性이다.

4) 俱生起 … 邪師, 邪教, 邪思惟 등의 바깥 緣에 의지하지 않고 나면서부터 갖추어 있는 선천적인 번뇌.

5) 大乘起信論 海東元曉疏 卷二 15上 5行.

1) 大乘起信論 海東元曉疏 卷三 7下 2行.

인 본각의 德을 갖추고 있지만 변뇌망상으로 더럽혀 져서 그 性德이 가려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 性德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실천수행을 요하게 되는바 발심 수행해서 본래 구족한 眞如性을 깨닫는 것을 始覺이라 한다. 그런데 이 시각은 무엇을 인하여 生하는가 하면 본각을 말미암아 生하는 것이다. 우리들에게 만약 이 본각이 없다면 어떤 善緣을 만날지라도 반성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이 본각의 德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것이 因이 되어 밖으로 善緣을 만났을 때 改過遷善하여 드디어 시각의 道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불각이 퇴치되는 때 비로소 시각과 본각이 일치된다. 시각과 본각이 일치될 뿐만 아니라 覺이라는 명칭까지도 없어지고 淨法의 眞如界만이 드러나게 되니 이것이 곧 淨法緣起의究竟이다.

그 覺의 내용을 말하자면 始覺에 四種이 있으니 즉 凡夫覺, 相似覺, 隨分覺, 究竟覺이다. 이상 四種의 始覺中에 앞의 三覺은 아직 妄心의 本源을 깨닫지 못하므로 非究竟覺이라 하고, 第四의 覺은 心源을 깨달았기 때문에 究竟覺이라 한다. 다음 본각에 隨染本覺과 性淨本覺의 二種이 있는데, 前者는 본각의 작용을 밝힌 것이고 後者는 본각의 體德을 밝힌 것이다.

우리가 비록 선천적으로 본각인 如來藏心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지속적이고 용맹스런 수행력이 없으면 무명을 끊고 열반의 彼岸인 淨法의 세계에 돌아갈 수 없는 것이다. 비유하면 나무 가운데 불의 성품이 있으나 사람의 손이 들지 않고서는 發火할 수 없는 것과 같다.

#### 4. 結語

이상에서 眞如와 無明의 화합체인 阿黎耶識을 중

심으로 해서 染法의 迷界인 현상계가 삼세육추의 과정을 밟아서 연기한다는 것과 또 淨法의 悟界인 本體界가 시각의 과정을 통하여서 연기된다는 것을 말하였다. 다시 말하면 染法緣起는 본체계로부터 현상계에 流轉하는 것을 말한다면 淨法緣起는 현상계로부터 본체계에 還滅하는 것을 말한 것이다. 「起信論」의 論旨로서 본다면 眞如心은 無明의 동요에 의해서 연기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기신론」의 연기설은 무명연기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무명 없이는 진여가 연기할 수 없다. 비유컨대 漵然寂靜한 바닷물을 폭풍이 몰아쳐서 풍랑을 일으키는 것과 같이, 無明은 眞如海上의 풍랑과 같은 것이다. 만약 폭풍이 그치면 풍랑도 따라서 멈추는 것과 같이 眞如本心上의 根本과 枝末의 모든 변뇌만 소멸된다면一心은 담연적정한 본연의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

#### 참고 문헌

- 『大乘起信論講話』, 村上專精 著.
- 『大乘起信論』, 海東元曉 疏.
- 『成唯識論』
- 『高麗大藏經 大般若經』卷 569.

## 멋진 눈(雪)

편집부

눈이 평평 내리는 어느 날 방거사는 며칠을 머물고 있던 약산 스님의 절을 떠나기 위해 스님에게 하직 인사를 드렸다. 그러자 약산 스님은 선원에서 정진하고 있던 스님 10인에게 거사를 해탈문까지 전송하라고 분부했다.

문밖에 이르자 거사가 공중에 휘날리는 눈을 가리키며 말했다.

“참 멋진 눈이다. 한 송이 한 송이 가 다른 곳에는 떨어지지 않는구나!”

이 말을 받아 전(金)이라는 선객이 말을 했다.

“어느 곳에 떨어집니까?”

그러자 거사는 손으로 한번 때렸다. 그러자 전 선객이 말했다.

“이렇게 함부로 대하시면 곤란합니다.”

이에 거사가 말했다.

“이러고도 선객이라고 우쭐대면 염라대왕이 스님을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다시 선객이 “거사님은 어떠합니까?” 하니, 거사는 다시 손으로 그를 한번 더 쳤다.

그리고는 말했다.

“눈으로는 보아도 소경과 같고, 입으로는 말하여도 병어리와 같다.”

-방거사 이록 중-

## 마음 쉬는 연습을 합시다.

무상 / 사집과

보통 한철이면 몇 번은 요가 외전 수업을 받습니다. 평소에 굳어져 있던 혹은 쓰지 않는 부분의 몸을 많이 움직여서 이리저리 꼬아도 보고, 구부리고, 돌리고, 꺾고, 평고, 그대로 멈추고… 저녁마다 이부자리에서 나름대로 몸을 풀고 잔다고는 하지만, 그 정도로는 난해한 동작들을 따라 하기에 너무도 많이 부족한 듯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몸을 방치한 탓이겠지요. 그중에서는 조금 잘되는 스님도 있지만 대개는 다 비슷비슷한 형편입니다. 안 쓰면 굳어집니다. 잘되지 않는다고 포기하거나, 그래서 계속 쓰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쓸 수 없게 됩니다.

굳이 다윈의 용불용설(用不用說)까지 들먹이지 않더라도,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용불용설이란, 자주 사용하는 기관은 점차 발달하고 안 쓰는 기관은 점차 퇴화한다는 학설로 일단 획득된 형질은 자손에게도 유전이 된다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지금처럼 목이 길지 않았던 기린이 좀 더 높은 곳에 있는 나뭇잎을 먹기 위해 노력하다보니 점차 목이 길어져서 그 형태가 변한 것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이 용불용설이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물을 바라볼 때나, 혹은 어떠한 생각을 할 때 한 곳으로만, 또는 내 생각으로만 그것을 관찰하고 행동한다면 내가 보지 않는 곳, 쓰지 않는 곳, 모르는 곳의 생각은 저도 모르게 편협되어 굳어져 버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내 것대로만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보며, 분별에 빠지고, 망상하고, 시비하고, 번뇌하고… 내 몸에 굳어진 자잘한 습관들, 내 머릿속에서 옮기고 생각하고 행동해왔던 모든 일들이 사실은 길어진 기린의 목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길어진 기린의 목이 다시 짧아질 수 있을까요? 학설상으로야 잘 모르겠지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방법은 바로 ‘수행’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그러한 단점 혹은 편협 된 사고들을 너무도 잘 알면서 정작 고치려 하지는 않습니다. 그럴듯한 평계들로 자기합리화를 하기에 바쁘지요. 오랫동안 굳어진 그것을 풀기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공부를 하는 우리는 이것을 ‘我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상이란 것은 사실 뭐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출가해서 얼마 안 되어서의 일입니다. 저희 절은 대중처소는 아니지만 상노스님, 노스님, 노스님의 사제스님, 은사스님, 사숙님, 사형님, 사제스님, 행자님 등 여느 대중처소 못지않은 많은 스님들이 함께 삽니다. 그러다보니 어른스님께서 시키시는 일, 하루일과로 해야 할 일 등 하루 종일 이일 저일 하다보면 좀 더 빠른 시간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생각하며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나 저 나름대로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일을 시키신 어른스님이나 혹은 같이 일하던 사제스님들의 마음에는 제 생각을 내서 제 마음대로 일한 것이 되어버리곤 했습니다. 그것이 마음 상해서 하루는 은사스님께 이런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간단하게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무상아!” “예.” “그게 我相이다.” “스님, 저 이상 없어요. 그냥 효율적으로 잘하려고 했던 것뿐이에요.” “야, 이놈아! 이상 없다고 생각하는 그게 가장 큰 이상이야.”

그날 이후 저는 생각 생각마다, 하는 일마다, 내 몸에, 내 마음에 얼마나 많은 이상이 붙어 있었는지 조금이나마 알아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옮기는 생각, 내가 했다는 생각, 수행자라는 생각, 스님이라는 생각, 내가 잘났다는 생각, 혹은 못났다는 생각, 남들과는 다르다는 생각 모두가 놓아버려야 할 이상들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방하착이란 말이 가슴에 들어왔습니다. 방하착(放下着)!! 放은 ‘놓는다’는 뜻이며, 着은 ‘집착’을 의미합니다. 본래 空한 이치를 알지 못하고 모든 것에 걸려 집착하는 마음을 놓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특히나 자연스럽게 길들여져 왔던 ‘나’, ‘내 것’에 끄달려서 일어난 아집(我執)을 놓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집착을 놓는 일이야말로 끊임없이 계속되는 욕망으로부터 시작된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방하착이 그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다겁생래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어서 어떻게 놓아야할지, 무엇을 놓아야할지 조금은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놓으면, 놓는다는 相조차 없이 놓는 연습을 한다면 한걸음 한걸음씩 더디게 가더라도 바른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수행자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 한마음 쉬는 것이 우리 공부의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대중스님들, 지금부터는 우리 모두 쉬는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

## 〈원왕생가〉를 통해서 살펴본 아미타신앙

원명 / 사미니파

### 목 차

#### I. 서론

#### II. 본론

##### 1. 배경설화 및 원문

2. 정토왕생사상
- 1) 도솔정토사상(미륵신앙)
- 2) 극락정토사상(아미타신앙)
3. 신라인의 아미타신앙
4. 〈원왕생가〉에 나타난 아미타신앙

#### III. 결론

#### I. 서론

향가는 향찰로 기록되어 오늘에 전해지는 신라시대 노랫말이다. 『삼국유사』와 『균여전』을 통해서 25수만이 전해질 뿐이지만, 문학 뿐 아니라 민속·역사적으로 뛰어난 사료로 평가 받는다.

그런 향가 가운데 『삼국유사』 권 5, 「광덕엄장조」에 실린 가사와 〈원왕생가〉라는 노랫말은 신라인의 지극한 신앙심이 묻어있다. 머리를 깎은 지금에서

야 '나는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믿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던 차에 다시 접한 〈원왕생가〉는 마치 갓난아기가 어머니를 의지하듯의 심 없이 믿고 수행한 범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학과 문명을 이유로 증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 믿으려 들지 않았던 스스로를 반성해 보는 시간을 주었다. 이 글을 통해서는 서방정토로의 왕생을 기원하는 노랫말을 바탕으로 신라인이 꿈꾸었던 정토와 그들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자 한다.

### II. 본론

#### 1. 배경설화 및 원문

『삼국유사』 권 5, 광덕엄장조에 다음과 같은 설화와 노랫말이 실려 있다.

문무왕 때에 광덕과 엄장이라는 두 사문이 있었으니, 서로 친분이 두터워 진정한 편안함에 먼저 이르는 자가 이를 알려주기로 하자고 약속을 하였다. 광덕은 분황사의 서쪽에 은거하며 아내와 함께 신을 삼아 생활하였고, 엄장은 남악(南岳)의 암자에서 화전을 경작하고 살았다. 어느 날 저녁 엄장의 집 창밖에서, "나는 지금 서방정토에 가니 그대는 잘 있다가 속히 나를 따라오라." 하는 광덕의 음성이 들렸다. 이튿날 엄장이 광덕의 집에 가보니 그가 이미 죽었으므로 그의 부인과 함께 장사를 지냈다. 장례를 마치고 엄장은 광덕의 처에게 같이 살 것을 청하였고, 부인도 허락하므로 엄장이 부인에게 동침하기를 청하니, 부인이 이를 거절하며 말하기를 "당신이 정토에 나오자 하는 것은 나무에서 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다. 엄장이 그 까닭을 물으니 부인이 말하기를 "지아비와 10년을 같이 살았으나 더러움만 쌓을 뿐이라 하여 하룻밤도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소. 그분은 매일 밤 바쁜 자세로 앉아서 일념으로 아미타불을 염송하며 마음을 맑게 되었을 뿐이니, 달빛이 그 분을 따라 방안에 가득하고 가부좌한 발 위에서 빛날 뿐이었소. 그

분은 이렇듯 정성을 다하였으나, 당신은 더러운 욕심을 버리지 못하였으니 어찌 서방정토에 나시겠소." 하였다. 이에 엄장은 부끄러워하며 물러난 뒤 원효법사의 처소에 가서 깨달음을 구하니, 법사는 정관법(淨觀法·몸을 깨끗이 하고 번뇌의 유혹을 끊는 관법)으로 그를 이끌었다. 엄장은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꾸짖어 한 마음으로 관법을 닦으니 역시 서방정토에 가게 되었다.

그 부인은 곧 분황사의 종이었으며, 관세음보살의 19응신이었다 한다.<sup>1)</sup>

#### 달하 어째서

서녘으로 가시나이까.

무량수불전에

보고(報告)의 말씀 빠짐없이 사뢰소서.

서원(誓願) 깊으신 부처님 우러러 바라보며  
두 손 곧추 모아서

원왕생 원왕생

그리는 이 있다 사뢰소서.

아아, 이 몸 남겨두고

사십팔대원(四十八大願) 이루실까.<sup>2)</sup>

#### 2. 정토왕생사상

정토(淨土)란 부처님이 계시는 청정한 곳을 대표하는 말이다. 〈원왕생가〉에서 드러난 왕생이라는 개념은 그와 같은 청정한 곳에 가서 태어나고자 하는 발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신라시대에 이 왕생사상이 널리 유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 가운데에서도 미륵보살이 계시는 도솔정토사상과 아미타부처님이 주재하시는 서방극락정토로의 왕생사상이 두드러진

다. 이 두 가지 사상을 통해서 정토사상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 1) 도솔정토사상(미륵신앙)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토사상은 불자가 부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서 태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신앙이다. 이와 같이 '가서 태어나는 것'을 上生이라고 한다.

그런데 신라에서의 미륵신앙은 이와 같은 상생사상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반면 미륵보살께서 下生하시어 이 땅에 불국토를 건설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사상이 곳곳에서 드러난다.<sup>3)</sup> 이것은 신라 귀족사회의 불교가 현세 이익적 사고를 바탕으로 신앙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현재의 사회적 신분 및 영향력에 만족하고 있는 귀족들은 군이 다른 세계로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았다. 동시에 그들이 이루어 낸 통일이라는 대업에 크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신라는 부처님이 오실만한 곳이며, 불국토가 성립될만한 땅이라 믿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사상은 미시랑 설화, 죽지랑 설화 및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의 설화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비해 광덕엄장의 설화는 극락정토-고통을 여읜 즐거움의 세계-를 염원하는 서민들의 신앙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 2) 극락정토사상(아미타신앙)

아미타불은 먼 과거세에 법장보살이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원을 세우고 수행한 결과 부처를 이루어 서방의 극락정토에 머무는 부처님이다. 무량수불(無量壽佛) 또는 무량광불(無量光佛)이라고도 한다. 아미타불은 중생들이 그 명호만 외워도 극락으

1) 『삼국유사』, 일연 저.

2) 노래의 작자에 대해서는 크게 4갈래의 의견이 있다. 광덕, 광덕처, 원효 등의 개인이 작자라는 설과 전승가요에 설화가 합해진 형태라는 설이 그것이다. 본문에서는 설화의 마지막 문장을 통해 이 노래를 광덕이 지었다는 의견을 따르고자 한다.-『신라 향가 연구』, 김동욱, 부산대학교 출판부, 1990.

3) "신라사회나 향가에 나타난 도솔천 미륵신앙은 미륵하생을 청원하는 것이 대부분임은 특이한 일이라 하겠다. 아마 이러한 사실은 신라에 있어서의 호국불교적인 현실주의와 지상극락을 염원하는 불국토 완성을 바라는 일념에서 나온 사실이 아닌가 한다." - 신라왕생문학고, 『국문학』4집, 인권한, 고려대, 1960, 37p 참조.

로 이끌겠다고 발원할 정도로 자비로운 부처님이다. 그러나 염불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불교 내에서는 매우 독특한 신앙체계라 할 수 있다. 불교는 인과의 원리를 깨닫기 위해 수행하는 종교임에도 염불을 통한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터력신앙의 요소가 없지 않다. 또한 아미타신앙은 이 세상을 말세로 인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말세인 이 세상에서는 수행을 거듭하여도 이상적인 가르침이 실현될 수 없으므로 그러한 현실과 자신의 상황을 인식하고 아미타불의 자비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아미타신앙이 가진 중생제도의 목적이 보편적으로 수용되었음을 뜻한다고 하겠다. 특히 신라에서 아미타신앙이 널리 보급된 양상에 대해서 다음을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 3. 신라인의 아미타신앙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등의 정토 삼부경을 바탕으로 발전한 아미타신앙은 서북인도에서 처음 발생하였다. 이는 서역 기원 전후에 중국을 거쳐 한역대장경의 형태로 한반도에 유입되었다. 삼국시대 아미타신앙은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룬 문무왕 시대에 이르러 정점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미륵보살이 이 땅에 화현하시길 바라는 신라 귀족들의 불교와는 다른 시각을 가진다.

즉 통일전쟁을 직접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은 백성들의 고통은 서방정토로의 왕생이라는 종교적 완성 상태를 통해 치유되기를 바란 것으로, 이것은 중생제도라는 궁극적 목표를 지닌 스님들에 의해 중요시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효대사는 그 대표적인 예로서 그는 『무량수경』에 주석을 달고 보급에 힘썼다. 그의 노력을 통해 『무량수경』과 아미타신앙은 계층과 무관하게 널리 보급되었고, 특히 서민계층에게 환영받는 신앙이 되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미타신앙이 교리적으로 쉽기 때문이었다.

즉 교리의 철학적 이해보다는 종교적 활동이 완성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인 힘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서민들은 이 간단하면서도 호소력 있는 신앙을 쉽게 받아들였던 것이다.

둘째, 터력 신앙적 성격 때문이었다. 서민 등은 자신의 처지를 바꿔 줄 강력한 초월자의 출현을 기대하거나 자신들이 복을 누릴 새로운 세상을 바란다. 이 두 가지는 모두 현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인데 종교의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부정적 인식을 정당화시키는 것이며, 또한 새로운 가능성 및 이상적인 형태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아미타신앙은 극락이라는 보다 이상적인 세계로의 왕생을 제시하여 민중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었다는 특징이 있다.

셋째,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라는 매개체가 있기 때문이었다. 원래 아미타불을 협시하던 두 보살이 각각의 특성을 드러내며 독립적 신앙의 대상이 된 것 역시 통일 이후였다. 이전까지 신앙의 형태가 절대자로서의 부처님과 그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의 1:1 구조였다면, 이 두 보살의 등장은 중생이 의지할 바를 더욱 넓히는 역할을 했다. 이로써 부처님이 아니더라도 중생을 구제하고자 서원을 세운 이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고, 중생을 보다 널리 포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아미타신앙은 7세기 후반에서 8세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크게 흥성하면서 누구나 불교에 쉽게 접근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신라에서는 범부를 위하는 신앙임을 강조하는 한편, 오역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임종시의 십념 염불로 극락왕생을 할 수 있다는 정토교학을 전개하여서 신라만의 정토사상을 수립하게 된다.

### 4. 〈원왕생가〉에 나타난 아미타신앙

원왕생가의 등장인물을 살펴보면, 신을 삼는 광덕과 분황사의 종인 아내, 농사를 짓는 엄장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평범한 인물들이다. 그런데 특이한

만한 것은 분황사의 노비인 광덕의 아내가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라는 설이다. 이것은 관세음보살이 천한 몸을 하고서 이 세상에 와서 중생을 제도했다는 의미일 수 있다. 또한 천한 신분이라 하더라도 수행을 통해 관세음보살이 될 수도 있다는 상대적 상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광덕과 엄장이 지극히 평범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토왕생을 이룬 것과 같은 맥락으로, 신라의 아미타신앙이 범부들에게 어떤 각도로 접근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 하겠다.

〈원왕생가〉에 직접적으로 나타난 소재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달'이다. 달은 차고 기울기를 반복한다. 이러한 특징은 부분성과 총체성을 함축한 소재로 이해되어 문학에 자주 등장한다. 특히 〈원왕생가〉에서는 인간의 삶과 종교와의 분리 및 합일이라는 양상이 상응하고 있다. 화자는 완성된 형태인 동근 달을 통해 대상과의 합일, 즉 극락정토로의 왕생을 원하고 있다. 또한 달은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존재이며 그 진행 방향이 동쪽에서 서쪽을 향하고 있다.

즉 현실의 어두움 속에서 살고 있는 화자와 교감하는 대상이 되며 아미타불의 서방정토로 직접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하는 길잡이가 된다. 이것은 아미타불의 또 다른 협시보살인 대세지보살이 아미타불의 자취를 따라 중생을 제도하는 모습의 또 다른 상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광덕·엄장의 설화는 아미타 삼존을 완결하여 보여주고 있다. 노래에 나타난 무량수불은 곧 아미타불의 다른 이름이고 기원의 대상이 된 달은 대세지보살의 응현이며 광덕의 처가 관세음의 화신이었다는 것이 그려하다. 이 작품은 아미타신앙에 있어서 개인적 기원과 함께 신앙의 대상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해 그 함축적 의미를 더하고 있다.

### III. 결 론

아미타신앙은 통일 전쟁으로 치친 신라에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신라인에게 생긴 그 절대적인 믿음의 바탕에는 부처를 이루고 불국토에 갈 수 있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었으리라 여겨진다. 물론 진정한 불교는 無常·苦·無我的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열반을 추구한다. 그렇다고 해서 아미타신앙을 과거한 때 유행했던 신앙형태로만 생각할 수 없다. 원왕생가를 통해 만난 광덕과 엄장이라는 인물 역시 강한 믿음과 노력으로 왕생을 이루었다. 이것은 두 인물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 나갔음을 의미하므로 '터력신앙'에만 매달렸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현대 우리들은 정보의 물결 속에서 무수한 교리와 수행 방법을 접하고 있다. 최근 한국 불교의 정체성에 대한 많은 토론 또한 '방법'에 대한 논의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방법이라는 것은 강을 건너면 결국 벼려야 할 뗏목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강을 건너고자 하는 의지를 가졌는지, 건널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원왕생가와 그 관련설화를 문자로만 만날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연구와 해석을 통해서 현재 우리에게 맞는 수행법을 찾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 참고 문헌

- 『증정 고가 연구』, 양주동, 일조각, 1965.
- 『삼국유사 향가연구』, 양희철, 태학사, 1997.
- 『한국문학통사』, 조동일, 지식산업사, 1988.
- 『아미타경 언해의 국어학적 연구』, 김영배 외, 법보신문사, 1997.
- 『삼국유사』, 일연 저.
- 『신라향가 연구』, 김동욱, 부산대학교 출판부, 1990.

## 왕진가방 속 일기

무구 / 사교과



병자를 돌보아주는 이는 곧 나(부처님)를 돌보는 것이요.  
병자를 간호하는 이는 곧 나를 간호하는 것이다.

1년이란 긴 시간을 대중간병소임을 맡으며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아픈 이를 돌보리라는 굳은 결심으로 사진기 가방을 개조하면서  
나의 소임은 시작되었다. 처음 가방을 사서 이것저것 챙겨 넣는 나를  
보며 반 스님들 웃으며 “스님, 완전히 찾아가는 서비스 ~ 왕  
진가방이네요! 환자 많이 생기는 거 아니야?” 했던 그 말  
이 … 아~ 정말 나의 가방덕분인지 ‘제발’을 한해 대중스님들 아  
프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했던 나의 간절한 기도는 험도 없이 환자는 많았고 급기야 약이 바닥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I 뼈뽀뼈뽀 도량안에 119차 출현**, 급하게 찾는다는 전달을 받고 대원실로 가보니 갑자  
기 허리통증으로 앓도 서도 못하는 환자가 있어서 급하게 119차를 불렀다고 한다. 나는 고통스러워하는  
그 스님과 같이 119차에 탑승하여 병원으로 가게 되었다.

문제는 이때부터……

그 스님은 편안히 누워있고 나는 옆에 어정쩡하게 앉아 가는데, 길은 S라인인데 누가 119차 아니  
랄까봐 아저씨가 어찌나 속력을 내던지 속은 울렁울렁 거리고 머리는 꿩 돌아 금방이라도 올릴 것 같  
았다. 나는 옆에 있는 긴 봉을 부여잡고 “아저씨!! 이차 왜 이리 통통튀고 흔들리는 거예요! 멀미나 죽  
겠어요!” 아저씨는 “이차가 트럭 뒤를 개조한 것이라 처음 타시는 분들은 좀 멀미를 합니다! 좀 참고  
옆에 창문 여세요!” ‘아~~나보고 참으란다.’ 어지러워 쓰러지기 일보직전인 나는 잘 열리지도 않는  
조그만 창문을 간신히 조금 열어 코와 입만 내밀고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차는 여전히 이리 저리로 왔다갔다하고 나는 봉을 부여잡은 채 간신히 꾹꾹 누르고 있는데 119

대원 아저씨, 환자 신분을 적어야 한다고 나보고 적으란다. ‘아저씨 제 상태를 보고도 그 말이 나오십니까?’ 나는 풀린 눈으로 그 스님 의료보험카드를 주며 “아~저~씨”라고만 했는데 아저씨는 사태 파악하고는 “주십쇼. 제가 쓰겠습니다. 그리고 스님 쪼메만 참으세요. 다 와갑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너 무 긴 시간이었다. 병원에 도착해서 치료 후 그 스님은 다행히 많이 좋아졌고 나는 그때까지도 비몽사몽… 그 후로도 나는 119차를 두 번이나 더 타게 되었다. 여전히 옆에 봉을 부여잡은 채… 나는 이제 119차만 보면 멀미가 난다.

**II 방학 중 발목을 빼어 온 모스님**, 며칠 무리를 했더니 발목이 부었다고 나에게 진찰을  
의뢰하였다. 나는 문득 뜰을 뜨면 괜찮지 않을까하는 실험정신이 불끈 솟아올라 그 스님한테 “스님, 뜰  
을 떠봅시다. 원래 이런 곳에 뜰을 뜨면 좋아요” 했다. 나의 처방을 잘 따르는 이 스님은 “어, 그래요.  
그럼 뜰을 떠주세요.” “내가 이런 건 잘 해주지 않는데 스님이니까 해주는 거예요.” 하며 온갖 품은 다  
잡고 드디어 뜰을 뜨기 시작했다.

발목에서부터 복숭아 뼈 주위로 한 5~6개 정도 뜰을 뜨는 첫 번째 시술을 시작하였다.  
뜰이 타들어가기 시작하자 그 스님은 너무 뜨겁다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스님! 수행자가 이것 하나 못 참아요! 이게 뭐가 뜨겁다고, 좀 참아요!” 하지만 그곳은 연한 살갗이  
라 무척 뜨거웠을 것이다. 뜰이 다 타들어갈 즈음 “원래 삼세판이라고 세 번은 떠야 합니다.” 하고 난  
또 뜨기 시작했다. 그 스님이 “이제 좀 덜 뜨거운 것 같아요.” 하기에 나는 복숭아 뼈 주위로 해서 좌~  
악 뜰을 떴다. 그런데 발목 주위가 뻘게지는 것이었다. 윽! 살이 익어서 덜 뜨거웠던 것이었다. 나는 조  
금 움찔해서 일단 마무리를 지었다. 문제는 오후가 되자 이 스님이 나를 다급히 찾으며 “스님, 아까 뜰  
뜬 데가 이상해요.” 눈빛은 침울했고 양말을 벗는 순간 윽~거봉 같은 일이 뜰 뜯 자리마다 물집이 잡  
혀서 팍~ 부위 올라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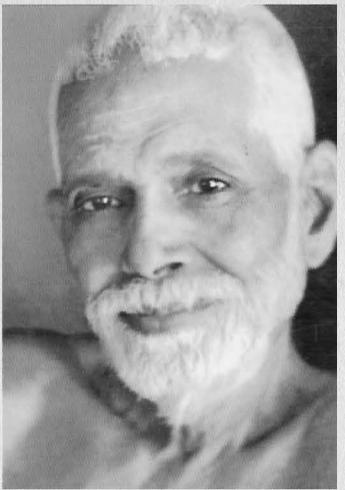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더니…

그 후로 나는 매일매일 지극정성으로 치료를 해주었고 연한 발목 부위라 잘 낫지도 않아 씻는데  
많이 불편해도 참고 치료를 끝까지 잘 받아준 그 스님이 너무 고마웠다. 아직도 그 스님 발목 주위  
에 뜰 뜯 자리가 시꺼멓게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나는 다시는 절대 불법시술은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대원실은 여러 가지 병고로 스님들이 많이 방문한다. 나는 스  
님들의 증상을 들으며 아픈 감정을 느끼려 한다. 같이 아  
플 수는 없지만 그 아픈 마음을 이해하고 치료하며, 낫  
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데 나의 지침을 따르지 않  
는 스님을 보면 답답하고 속상해지기도 한다.

부처님께서는 병든 자를 간호할 때 단순히 육신  
의 병고뿐 아니라 마음의 눈까지 열리도록 자비  
심을 베풀라고 하셨다. 나는 1년 동안 대중스님  
들의 마음의 눈까지 열리도록 정성스럽게 간호했  
는지 죄송스런 마음이 든다. ♡





침묵의 성자 ● 스리 라마나 마하리쉬의 가르침  
있는 그대로

석우 / 사집과

**바보 열 명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넜다. 건넌 다음 그 중 한 명이 숫자를 세어보더니 “아홉 명 뿐이네! 한명이 없어졌어” 하면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세어 보라고 한다. 그가 세어보니 역시 아홉 명 뿐이었다. 그들은 모두 자기 자신은 빼고 세었던 것이다. 그들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한 사람이 빠져 죽은 게 틀림없어” 하면서 울음을 터뜨렸다. 지나가던 행인이 강둑에서 울고 서 있는 바보들을 보고 사연을 물었다. 그 바보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행인이 세어보니 그들 일행은 틀림없이 열 명이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내 알아차렸다. 행인은 열 명의 바보들에게 나뭇가지를 하나씩 쥐어주고 구령을 불이게 했다. “하나, 둘 ……열” 그제야 바보들은 놀란 눈으로 서로를 보며 “열 명이 맞네!” 하면서 기뻐했다.**

열 명의 바보! 그 중에 내가 있었다.

출가! 그것은 답을 찾고 싶은 마음이었다. 왜 지금 내가 이곳에 이렇게 존재하는지, 왜 나와 저 사람은 이렇게 다른 것인지, 어릴 때부터 ‘나’라는 존재에 대해 가졌던 불안한 마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고개를 들이밀기 시작했다. 물론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하면 이런 것들조차 공허한 외침이 되고 말테지만 웬지 그래도 그 가운데에 영원한 뭔가가 있을 것 같은 막연한 기대감과 답답함을 부처님이라면 속 시원하게 풀어 줄 것 같았다. 하지만 출가를 한다고 해서 이 의문에 통쾌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회색 옷을 하나 더 입고 스님이라는 허울에 걸맞은 행동과 습에 익숙해져 가면서 열심히 스스로를 퍼즐의 빙 공간에 페맞추고 있는 내가 있었다.

이 지루한 제자리걸음에 한 치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일 수 없을 때 마하리쉬의 ‘있는 그대로’ 란 책을 만났다. 이 책은 ‘마하리쉬’라는 성자와 그의 제자들이 주고 받은 문답식의 대화록으로, 1부 참 자아로부터 6부 이론까지 6개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다. 그는 열여섯 살에 죽음을 체험하고 참 자아는 육체나 마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알게 되는데, 내면의 부름에 따라 인도의 아루나찰라산에서 선정의 상태에 몰입하게 된다. 그의 가르치는 방식은 침묵이었으며, 이 책은 침묵의 괴장에 동화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설파한 내용의 일부로 후대 제자들에 의해 편집되었다.

마하리쉬는 평상시 인간이 감각적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나’라는 생각은 예고일 뿐, 그 개체를 넘어선 자리에서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각성(覺性)이 ‘참 나’이며 주인공이라고 한다. 즉 깨달음이란 이런 지속적이고 영원한 참 자아를 각성하는 상태라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을 빗대어 그가 들려준 ‘바보들의 이야기’에서 바보들이 슬퍼한 것은 잊어버리지도 않은 친구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한 무지 때문이었다. 즉 본인을 세기만 하면 간단한 일을 그들은 몰랐던 것이다. 바보들이 본인을 제외시킨 채 밖의 다른 바보들이란 대상을 향해 치닫는 것처럼 이미 깨달음의 본성은 집 앞 쳐마 밑을 눈 들어 올려다 보기만 하면 되건만 그것을 모른 채 봄을 찾아 집 밖을 헤매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나 또한 ‘개체적인 자아, 그릇된 나’가 있어 그것을 없애야 한다는 분별에 사로 잡혀 분별인지 조차 모른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 그러다 보니 나의 본 성품을 믿는 일은 고사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발버둥을 쳤다.

마하리쉬는 또 말한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물음에 의해서만 마음이 가라앉는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생각은 마치 화장터의 장작불을 뒤집는 막대기처럼 다른 모든 생활들을 불태워 버린 후에 그 자체도 불태워져 소멸된다. 만약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이 생각이 누구에게서 일어났는가?’ 하고 물어야 한다. 그러면 마음은 점점 그 근원으로 향하게 되고 생각은 점점 사라지게 된다.” 즉 ‘나는 누구인가’라는 의문을 통해 궁극적으로 스스로에게 있는 문제의 근원을 발견하고 직접 대면해 해결해야 됨을 그는 권유하는 것이다.

그렇다. 출가 승려라는 외견상의 형식이나 붓다까지도 내게 답을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라는 사람의 본성을 믿고 내던져 보는 내가 해야 하는, 할 수 있는 일이었다. 매양 밥 먹고, 일하고 말하며, 經 보는 것 등이 그냥 하는 일이 아니며 모든 시비, 선과 악, 범부와 성인, 중생과 부처, 개체적이며 그릇된 나와 영원한 나, 일체의 분별과 망상이 들어오는 그 순간! 그것에 염오되지 않는 것이 평상심이었고, 수행이었다. 나를 끄집어 올려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 수행이라는 집착과 상(相) 조차 내던져 놓고 그럼에도 100% 본인을 던져 실천해야 하는 일이었다.

이제 지루한 제자리걸음에 경직되었을 다리를 벌려도 보고 뛰어도 본다. 반 스님의 말처럼 삼천포에 빠졌다가 한참 만에 길을 찾은 나! 아무려면 어떠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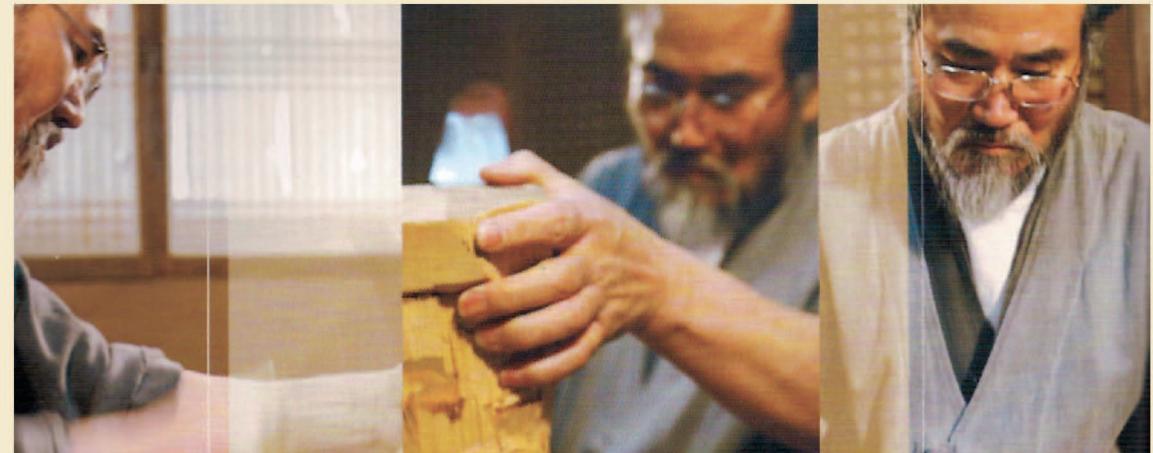
가을 그 붉던 기억들을 하얗게 수놓은 겨울의 섭리를 따라 두 팔 걷어 부치고, 성큼성큼 부지런히 걷기만 하면 됨을 지금은 아는데, 태양빛은 길목에서 있는 겨울을 연신 재촉하고 냉랭한 바람은 구름이 한 자리에 오래도록 지체함을 기다리지 않는다.

이 바쁜 자연사 가운데 이 움직이는 놈은 누구인지 묻는다. ☺

## 프랑스를 감동시킨 나무새김의 아름다움

- (한·불 수교 120주년 기념전시회를 개최하고) -

박찬수 / 목아박물관 관장



예술가란 대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여야 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밝고 밝고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달하고 알려주는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

야 한다. 또 몇십 년 나아가서는 몇백, 몇천 년을 내다보는 지혜와 창의력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예술가란 좋은 무대에 서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하며, 나 역시 우리의 전통문화, 그 중에서도 불교문화에 대한 전통이면서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것을 세계에 알리고, 전통 작품을 통해서 세계 누구나가 한국을 이해하고 쉽게 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통의 장르는 아직 까지 종단이나 국내에서 제대로 된 전시회나 좋은 무대가 없었다.

그래서 이번 프랑스 전시는 아주 특별하다. 올해

가 바로 한국과 프랑스가 수교를 맺은 지 120주년 되는 해로 그것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한 전시회이기도 하고, 더욱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국가가 추천을 하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프랑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술의 본고장'으로 알고 있으며 예술의 다양한 장르별로 세계적인 전문가가 가장 많은 곳이다. 또 세계로 진출하려는 작가들의 등용문으로 어느 작가든지 예술가라면 프랑스 무대를 꿈꾸고 희망한다. 이런 예술의 고장 프랑스에서 열린 이번 전시는 나에게 결코 우연히 온 기회는 아니었다. 일본 5개 도시에서 개최된 전시회와 미국의 멤피스 주정부 초대로 참가한 전시회, 유네스코초청 뉴멕시코주의 산타페 민속축제, 독일 하노버 문화관광부 후원 전시회 등 다양한 전시회에서 쌓아온 결과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1년 전부터 양국 정부와 문화재청, 프랑스 대사관과 문화원을 통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한국의 많은 현대예술작가들을 제치고 무용, 영화, 전시, 공연 등 다양한 장르 속에서 당당히 우리 전통불교조각이 프랑스 국립종교미술관의 초청을 받게 된 것이다. 천주교의 뿌리가 강한 프랑스에 초대

되는 그야말로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라 할 수 있다.

### 작가님 귀하

"저희는 오늘 귀하에게 귀하의 작품들에 대한 초대전을 통보하게 됨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스위스 건축가 마리오 보띠에 의하여 건축된 에브리 성당 내 국립종교미술관의 대회랑에서 2006년 9월 15일부터 동년 10월 29일 까지 장소 예약을 해놓았습니다. 이 전시가 방문하는 수많은 관람객들에게 커다란 감명을 줄 것을 확신하며 귀하를 만나는 기쁨을 기다리면서 저희의 귀하에 대한 존경심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립종교미술관장 이벳뜨 사페.

이것은 프랑스 에브리시 국립종교미술관에서 날아온 초청장을 내용이다.

"초청장을 받아들고 '멀리 프랑스에서 한번 잘해보자!'는 다짐을 하고 프랑스 전시의 본격적인 준비태세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동안 나는 항상 좋은 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하여 꾸준한 작품 활동을 해온 가운데 '다음 전시회에서는 108점을 출품하리라' 늘 마음먹고 있었다. 왜냐하면 108이라는 숫자는 나에게는 매우 특별하다. 나는 '제108호 목조각장'이며, 모든 사람들이

108가지의 변뇌 망상을 떨쳐버리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먹은 것처럼 이번 프랑스 전시회에서는 작품 108점을 출품하게 되었던 것이다.

우선 전시회에 출품한 작품들의 특징을 간단히 말하자면 첫 번째, 대한민국 사람 즉 가장 한국적이면서 민족적인 우리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했고 두 번째, 조상들의 불교 예배대상으로 전통적이면서 한국화되어 있는 불상을 소개하고 세 번째는 대중적인 것, 예를 들면 귀여운 동자상과 그리고 민족이 가지고 있는 애환, 민족통일 염원과 민족의 화합 그리고 성불도통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으며, 네 번째로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와 천주교적인 예배대상을 고려했고, 다섯 번째, 세계인들의 마음의 고향이면서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형태의 작품을 추구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돌, 흙, 나무, 동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한 작품을 전시했다. 또한 지금까지 대부분의 전통장인들은 평론가가 없는 개인전이나 전시회를 개최했지만, 나는 전통과 현대를 넘나들면서 평론을 하는 세계적인 평론가 슈리





①

① 전시회 퍼포먼스  
② 평론가 슈리게라 선생과 함께



②

### 게라 선생을 모셨다.

에브리시에 위치한 국립종교미술관은 에브리성당이 함께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그 모습이 삼성 리움 미술관과 흡사하다. 가톨릭 성향도 강한데다가 성당 바로 옆에서 치루어질 이번 전시가 후시라도 잘못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도 생겼지만 우리는 미술관과 미술관 뒤에 위치하고 있는 에브리대학을 잘 활용하기로 마음을 먹고 계획을 하나하나 세워나갔다. 전시장은 반원모양으로 생겼으며 한 면은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천장이 매우 높고 1층과 2층에서 관람이 동시에 가능하였다. 사전 답사에서는 에브리시 국립종교미술관 바바쇠르 큐레이터를 만나 공간의 동선을 고려한 전시 디스플레이 이라든지 개막 리셉션 등을 준비하였고 또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전시 홍보를 위한 방법과 대상별 작업이 진행되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경비문제였다. 우선 도록 발간과 퍼포먼스를 위한 비용, 왕복 경비등과 한 달 반의 전시기간 동안의 체류 비용 등 만만치가 않았다. 아무리 예산을 잡아보고 또 잡아보아도 역대 이상의 경비가 소요되었다. 초청장을 받아들고 삼성문화재단과 경기문화재단, 문화관광부, 여주군청, 문화재

청 그리고 KAL대한항공, 무역진흥공사, 관광공사, 조계종 그리고 불교단체, 기업인 등을 수없이 찾아다녔다. 우선은 참 좋은 전시회라고 칭찬은 하지만 전통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종교에 대한 천지차이의 이견들로 쉽게 접근하려고 하지 않았다. 문화재청과 조계종 쪽에 무게를 싣고 노력을 해보았지만 예산을 확보하기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불행 중 다행히도 삼성문화재단과 경기문화재단, 여주군청, 문화재청, 조계종에서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일부를 도와주셨고 거기에 내가 경비를 보태어 어렵사리 진행할 수 있었다. 이렇듯 바늘구멍만큼이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처님의 가호가 있었기에 이 전시회는 이루어 질 수 있었다.

하루하루 전시회가 다가오고 모든 분들이 힘써주시고 도와주신 가운데 9월 16일 오후 6시 드디어 전시오프닝이 시작되었다. 이베트 샤페 미술관장님, 에브리대학 총장님을 비롯하여 관광공사와 프랑스 문화원장님 주불대사, 주불문화원장, 전 국립중앙박물관 지간길 관장님과 박우명 전시팀장, 프랑스 현지에 있는 평론가, SBS방송 및 기타 현지방송과 교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역사적인 순간들이 시작되었다.

먼저 즉석에서 한국의 강원도 붉은 소나무인 홍송으로 환희 웃고 있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모습 등을 자귀와 도끼로 경쾌하게 조각하였다. 그리고 큰 북을 신명나게 친 뒤 가부좌하여 참선하는 모습 등을 시연하였다. 가슴을 울리는 북소리에 파란 눈의 사람들은 무슨 생각에 젖어들었을까? 내가 두 손을 모으고 참선에 들 때 그들은 나와 함께 선정에 든 듯 모두 숨을 죽이며 바라보았고 곧 전시장의 분위기가 숙연해졌다. 특히 '소문만복래'라는 제목을 가진 한 쌍의 웃는 표정의 한국인상을 순식간에 6자 크기로 조각하자, 큰 박수와 환호성을 보내며 놀라움을 감추지 않았다. 늘 다양함을 추구하고 그야말로 모던 한 서양의 현대미술과는 조금은 다르게 다가온 한국의 전통예술을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그들을 보며 그동안 힘들고 긴장했던 마음이 눈 녹듯 녹아 내렸다. 또한 내가 입고 있었던 한국의 전통복장과 신고 있던 짚신 또한 인기가 만점이었다. 신기하기만 한 듯 연신 사진을 찍어대는 그들의 모습이 싫지 않았고 나를 보는 그들의 신기한 눈을 나 역시 흥미롭게 바라보았다. 예술을 통한 교감이라고 하였던가!

나의 퍼포먼스는 300여명의 관람객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망치나 나무망치가 아닌 목탁과 요령, 사물을 연장삼아 조각하는 색다른 작업광경과 '탁탁탁 탁탁' 음악적인 요소를 함께 가미한 것이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불러낼 수 있었던 것 같다.

평론가 슈리게라 선생은 파란 눈으로 내 작업광경과 작품 하나하나를 보시더니 '동양의 미술사, 나무를 훑 다루듯 자유자재로 가지고 노는 사람, 종교를 넘나들며 세계인의 가슴을 편하게 해 주는 멋진 작가'로 나를 소개했고 많은 관심을 가지면 세계적인 작품이 탄생 될 것이라는 말과 함께 프랑스 전시는 성공적이라는 멘트를 덧붙였다.

물론 나의 가슴은 벅차올랐고 기분 또한 최고인 순간이었다. 이번 전시는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두

었고 특히 우리 전통 예술의 혼과 종교관을 통해서 우리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것을 확신 할 수 있었다.

개막식의 성공적인 공연과 함께 45일간의 긴 전시가 시작되었고, 그동안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 불교 목조각, 전통목조각을 보러 다녀갔다.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바라볼 것이고 마음 속 깊이 무엇인가를 새길 것이다. 부디 나의 미력한 힘으로 그들이 우리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또 사랑하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알리는 일, 또 발전시키는 일 이것은 내가 평생 걸어온 길이며 또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한국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내 것부

터 제대로 알  
고 세계화 할  
것이다. '나를  
바로 알고 볼 줄  
알면 무엇이 두려  
울 것이 있겠는가.'

하는 교훈은 프랑스

전시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 이것으로 나  
는 또 한 번 희망의 다  
리를 건널 수 있었다. 나  
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과 용기를 가지고 끊  
임없이 세계무대에 도전하  
면서 부처님의 가파력에 감  
사할 뿐이다. ◎



박찬수님은 중요무형문화재 108호 목조각장으로 현재 목아 전통예술학교 조각과 교수다.

2001년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저서로는 『알기 쉬운 불교미술』, 『불교목공예』, 『나의 선택 나의 길』 등 다수가 있다.



## 관세음보살님처럼 빛이 되리라

- 13회 동문 정현스님 -

지상 / 사집과

불국 정토를 향하여 성불을 염원하며 수미산을 오르기 시작한 수행자가 수미산 중턱을 오를 즈음 이면 몸이 이미 지칠 대로 지쳐 그 신심마저 희미해 지려할 때 그들을 위해 사천왕은 “왜 여기서 주저앉으려고 해. 왜 여기에서 포기하려는 거야. 절대 안 돼. 이제 정상이 머잖은 곳에 있어. 조금만 힘을 내. 처음 일주문을 들어설 때의 그 순수하고 지극한 일심이면 못 오를 것이 없을 거야. 그대가 가는 길을 우리가 지켜줄게. 힘을 내, 힘을 내라고!!”

지금도 수미산 중턱에서 사천왕은 만신창이가 된 수행자에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오를 것을 격려하며 자비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고 한다. 조계종에도 비구니스님을 응호하고 대변하는 상임감찰스님이 있다.

바로 “조계종 첫 비구니 상임감찰 정현스님”

호법부와 상임감찰직은 속세로 보면 검찰과 경찰을 겸한 곳으로 종단 내 각종 비리를 조사하고 승풍

업무를 담당한다. 이곳에서 스님의 별칭은 ‘살리는 감찰’이다.

“내가 어떻게 누구를 내리치겠어요. 모두 부처님의 제자들인데… 다 같이 수행 정진하도록 도와야겠죠.”

스님은 평생 기도 수행과 굳은 신심이 있었기에 감찰직을 맡을 수 있었다고 한다.

스님에게도 수행자의 초석을 다지게 했던 세 번의 고비가 있었다는데…

“열여덟 살 때 일인데 행자시절에 어쩌다 실명위기에 처했어요. 다들 ‘봉사 되겠다’는 말만 할 뿐 희망을 주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 때 난 간절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님께 기도드렸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어느 날 꿈속에서 관세음보살님이 따스한 미소를 머금고 눈부시도록 새하얀 백호광을 비춰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잠에서 깨어보니 안개가 일시에 걷힌 듯이 앞이 훤히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너무도 흥미로운 말씀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그렇게 해서 고비를 넘기고 강원을 잘 다녔어요. 그 때는 어려웠던 때인지라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다음 날 예불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들던지. 그래도 나를 이기고 세벽예불과 108배에 빠지지 않았고 절기도 참 많이 했지요. 아

니 그런데 어느 날 해우소 앞에서 내가 심하게 넘어진 거라. 이상하게 혼이 나가는 것 같더니 그날 밤 꿈에 웬 여자가 나타나 널 테려가려 했는데 네가 하도 열심히 기도를 해서 테려갈 수가 없구나, 나중에 보자.’ 이 말만 남기고 홀연히 사라져 버렸어요. 어찌나 섬뜩하던지 그 일로 기도를 놓칠 수 없는 계기가 되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신기하면서도 그동안 열심히 기도하며 살지 못한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말씀이었다.

또 하나의 계기는, 서른 살 때 불영사에서 정진 중간염으로 두 달 밖에 못산다는 판정을 받았는데 선방스님들 모두가 전염에 개의치 않고 “함께 죽자”는 말로 스님과 함께하기를 바랬다. 선방스님들의 말에 힘입어 도량석을 자청했고, 도량석을 시작으로 장좌불와 하면서 기도를 놓지 않았다. 관세음보살님은 이번에도 스님에게 자비의 손길을 내미셨고 그날 이후 몸이 건강해지셨다고 한다.

스님의 말씀에 손에 땀이 나는지도 모르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목에서는 뭔가가 올라오는 것을 느끼는 찰나 선방스님들의 “함께 죽자”는 말에 우린 환호성을 터트릴 수밖에 없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가본 스님이시기에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바로 알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체험들은 스님을 어둡고 힘든 곳에 ‘관세음보살님처럼 빛이 되리라’는 다짐을 하게 만들었고, 그 결정체가



26년간의 교도소 포교활동으로 결실을 맺는다. 오늘도 스님은 정성주머니를 매달고 교도소를 향해 가신다. 사형수들의 어머니로 계신다는 스님. “우리 아들들이 그 차가운 시멘트 땅바닥에 엎드려서 어머니라고 절해요.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지장보살님이 모든 고통 받는 중생들을

다 제도하기 전에는 성불을 미루겠다고 서원을 하셨듯이 나는 여기 교도소에서 이 애들이 이생에 지은 업장을 깨끗이 녹여주고 싶어서 참회 절을 시키고 있어요. 이생에 다 녹여 맑혀서 보내고 싶어요. 내생에는 더 좋은 업을 받아서 살 수 있도록 말이예요.”

파르르 떨리는 이 감동을 어떤 사람인들 저버릴 수 있겠는가! 삶을 정성스럽게 사는 사람이라면 어느 장벽에 부딪힌들 아프다 말할 수 없고, 절망적인 현실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 것이다. 스님의 현재 모습은 어제의 행자였었고,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은 수좌였다.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 보았다. “어떤 것도 행(行)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 봉사도 작은 것부터 해봐야 하고, 돈 천 원 들고서도 남을 위해 쓸 줄도 알아야 해요.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작해 봐요. 하다보면 가슴으로 느끼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우린 신심으로 일궈 낸 스님의 모습에서 관세음보살님을 보았다. 수행자에겐 호법신장으로,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머니의 자상함으로, 후배들에게 든든한 선배님으로…

그런데 과연 우리는 남을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반성해 볼 일이다. 스님의 따뜻한 마음을 바탕에 가득 담고 앞으로 운문사에 가서 계을러 질 땐 신심을, 힘들어 하는 스님들에게는 자비를 풀어 놓고자 다짐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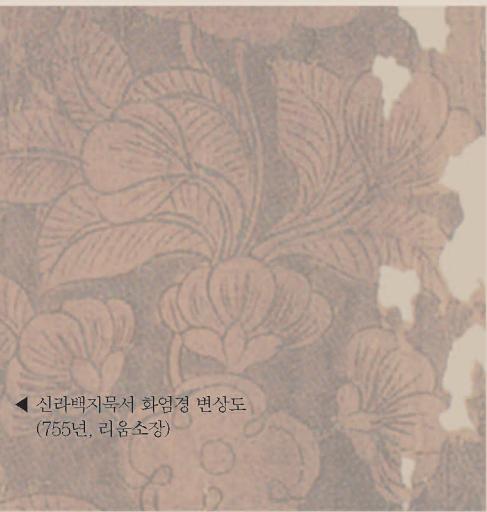
우리들 마음에  
풀이 있다면  
겨울엔  
거울처럼  
하얗게 되네요

효중 / 사미니파



## 지극한 정성

한정호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박물관 전임연구원



◀ 신라백지목서 화엄경 변상도  
(755년, 리운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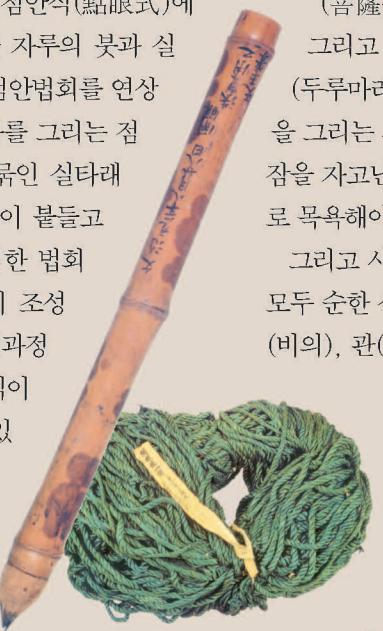
최근 우리나라 불교계에서는 불교문화재를 일컬어 성보(聖寶)라는 용어로 규정짓고 있다. 성보란 불교의 교리와 신앙에 기초하여 예배의 대상으로 조성된 조형물을 비롯하여 교화를 위한 방편으로 제작된 성물(聖物)을 일컫는다. 이러한 성보의 개념은 불, 법, 승 삼보에 근거하여 발전된 것으로 시 간적, 공간적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미적 가치판단에 구애받지도 않는 존재이다. 그리고 성보의 조성에는 그 시작부터 예배대상으로 모셔질 때 까지 엄격한 의례에 의하여 조성되기 마련이고 그 과정에서 뜨거운 신앙심이 기울여지기 때문에 술한 영협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렇게 볼 때 성보는 구체적인 형상을 지닌 조형물이지만 그 형상을 넘어선 존재이기도 하다.

따라서 위대한 성보는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과 성스러움 뜻지않게 조성과정에서의 여법한 절차와 신심에서 비롯된 지극한 정성이라는 무형의 요소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한다. 그러나 우

리나라에 전래되고 있는 수많은 성보들은 분명 여법한 절차와 신심에 바탕을 두고 조성되었지만 애석하게도 조성과정에서의 의례와 발원자들의 지극한 정성을 엿볼 수 있는 유물은 흔치 않다. 다만 백제에서 발견된 비석에 새겨져 있는 내용 중에 ‘금을 캐서 보배로운 불당을 짓고 옥을 깎아 보배로운 불탑을 세웠다(穿金以建珍堂 鑿玉以立寶塔)’라는 구절을 통해 우리의 선조들이 성보의 조성에 얼마나 정성을 기울였는지 기늠할 수 있을 뿐이다.

외세에 의한 침략과 전란이 많았던 우리나라에 비해 이웃나라 일본에는 많은 고대의 불교문화재들이 온전하게 보전되고 있다. 일본의 정창원에 남아 있는 유물 가운데 한 자루의 붓과 실타래가 필자의 눈을 끈 적이 있는데 그것은 놀랍게도 752년에 완성된 동대사(東大寺) 대불의 점안식(點眼式)에 사용되었던 유품이었다. 이 한 자루의 붓과 실타래를 통해 1300여 년 전의 점안법회를 연상 할 수 있는데, 부처님의 눈동자를 그리는 점안법사의 손에 들린 붓 끝에 묶인 실타래를 법회에 참석한 모든 대중들이 붙들고 한 마음이 되어 점안하던 장엄한 법회 광경이 그려진다. 분명 당시에 조성된 우리나라의 불상에도 조성과정에서의 다양한 의례와 점안의식이 있었을 텐데 관련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우리로서는 붓 한 자루마저도 의미를 부여하고 소중하게 간직해온 일본인들이 부럽기 짜이 없다.

▲ 일본 동대사 대불 점안에 사용했던 붓과 실타래(일본 정창원 소장)



그러나 우리에게도 선조들이 성보를 조성함에 얼마나 지극한 정성을 들였는지를 보여주는 신라시대의 유물이 있다. 바로 하얀 백지위에 일자삼배(一字三拜)하며 한 자 한 자 써 내려갔던 국보 196호 <

신라백지목서대방광불화엄경>으로 그 발원문에 담긴 내용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잔잔한 여운을 남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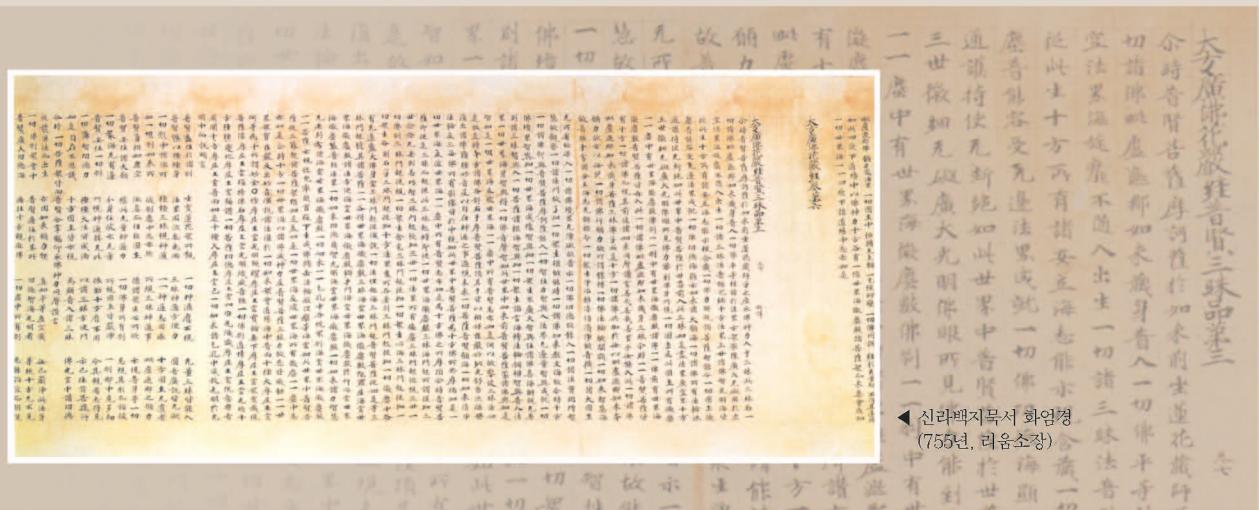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고대의 성보들이 대부분 형상만 남아있는 것과는 달리 이 신라 사경에는 제작과정에서 사경에 참여한 사람들이 지켜야 할 자세와 의식절차가 기록되어 있다. 놀랍게도 사경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종이를 만들기 위한 닥나무 재배부터 시작되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닥나무는 재배할 때 나무뿌리에 향수를 뿌리면서 키워 높이 10척 가량 자라면 닥나무의 껍질을 벗겨 삶고 종이를 뜯다. 이때에 참여한 사람은 보살계(菩薩戒)를 받고 정성껏 종이를 만들어 낸다. 그리고 경문(經文)을 필사하는 사람이나 경심(두루마리의 측)을 만드는 사람이나 불·보살상을 그리는 사람은 보살계를 받고, 대소변을 보거나 짬을 자고난 뒤에나 밥을 먹은 뒤에는 반드시 향수로 목욕해야 한다.

그리고 사경하는 장소(寫經所)로 이동할 때에는 모두 순한 신정의(新淨衣), 곤수의(禪水衣), 臂衣(비의), 관(冠), 천관(天冠)들로 장엄시킨 두 청의 동자(青衣童子)가 관정침(灌頂針)을 받들며 여기에 네 사람의 기악인(伎樂人) 등이 함께 악기를 연주한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은 향수를 가는 길에 뿌리고 또 한 사람은 꽃을 뿌리며, 한 법사는 향로를 받들고 이끌며 또 한

법사는 범파를 부르며 인도한다. 이 뒤를 여려 필사(사경하는 승려)들이 각각 향과 꽃을 받들고 불도를 행할 것을 염원하며 경을 만드는 곳에 도착한다.

사경하는 장소에 도착하면 삼귀의를 하면서 세 번 반복하여 예배하고 불·보살에게 화엄경 등을 공양하고 자리에 올라 사경한다. 필사를 마치면 경



심을 만들고 불·보살상을 그려 장엄하는데 이때에는 청의동자와 기악인들은 제외되나 다른 절차는 마찬가지이고 마지막으로 경심에는 한 알의 사리를 넣는다.

신라의 불자들의 사경을 제작하는 과정이 종이를 만들기 위한 닥나무를 심고 키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할 발상이다. 그만큼 성보의 조성은 지극한 정성과 엄숙하고 정엄한 의식절차에 의해서 행해졌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지극한 정성을 기울여 조성된 성보인 만큼 고귀하고 성스러울 수밖에 없으며, 영원히 소멸하지 않고 보전되기를 기원했음은 당연한 이치이다. 우리는 이 신라 사경의 남아있는 발원문을 통해 그들의 염원을 읽어낼 수 있다.

내 일념으로 서원하노니, 미래세 다하도록  
我念誓願盡未來

필사한 이 경전 파손되지 말기를  
所成經典不爛壞

설사 삼재로 대천세계 부서진다 하더라도  
假使三災破大千

이 경전 허공마냥 피고되지 말지어다.  
此經與空不散破

만약 일체 중생이 이 경에 의지하여  
若有衆生於此經

부처님 빼옴고 법문을 들으며 사리 밟들고  
見佛聞經敬舍利

보리심을 발하여 불퇴전하여  
發菩提心不退轉

보현행원 닦으면 깨달음 얻으리.  
脩普賢因速成佛

조성된 지 1300여 년이 흐른 이 백지목서 사경이 오늘날까지 전래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이러한 간절한 염원의 결과일지도 모를 일이다.

이러한 단적인 예를 통해 느낄 수 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래되고 있는 성보들은 하나같이 조성과 보존에 이와 같은 지극한信心과願力이 담겨있다. 우리의 손이 미치지 않는 오랜 시간을 견뎌온 성보에는 과거라는 시간들이 누적되어 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를 더한다면 옛것을 대할 때 그것이 주는 가치는 현재의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옛것이 누려온 과거라는 시간에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과거란 우리가 누리지 못한 수많은 사연들을 담고 있으며, 결코 인위적으로 조작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다. 따라서 우리가 선사들이 물려준 성보를 결코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당위

성은 바로 여기에 있으며, 부처님에 대한 신심과 원력의 결정체로서 이룩된 성보들은 우리 민족의 영원한 자랑이요 영광이자, 동시에 자손만대에 전승되어야 할 민족의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성보의 보존방안은 이상적으로 말하면 조성된 동기나 과정 그리고 현재 뿐 아니라 앞으로도 신앙의 대상으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보존하여야 하는 것이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여러 가지 조건과 제약으로 인하여 본래의 봉안처를 떠나있거나 방치되어 있으며 도난이나 파손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도 적지 않다. 한편 박물관이나 관련기관, 또는 개인이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성보로서 올바르게 보존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성보는 살아 숨 쉬는 문화유산이다. 대부분의 문화유산은 이미 지나가 버린 시대의 유물로서 그 역사성에 가치를 두지만 성보는 오늘날도 신앙의 대상으로 승장되고 있는 역사적 존재이면서 시간적 구애를 받지 않는 생명력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되어 160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수많은 성보문화재들이 조성되었다. 우리민족이 남긴 문화유산 가운데 그 예술성과 가치가 공인되는 문화재를 국보와 보물로 지정하고 있는데, 국보의 경우 지금까지 지정된 313점 중에 54%에 해당하는 169점이 불교와 관련된 성보문화재이며, 보물의 경우 865점으로 전체의 66%를 점유하고 있다는 통계만 보더라도 불교가 우리의 전통문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느낄 수 있다.

성보문화재들은 오늘날 우리 불교계의 가장 큰 자산으로 불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매체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관광자원으로써 국가 및 사찰의 재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을 볼 때 솔직히 우리 불교계는 조상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셈이다.

조상들이 물려준 성보문화재들을 소중하게 보존하고 기ucky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 여기에서 강조한다는 것 자체가 새삼스러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시대가 후손들에게 자신 있게 물려줄 수 있는 불교미술품이 있을까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모든 유형문화재들은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지금 남아있는 성보문화재들 역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변모해 가는 신앙의 형태나 당시의 시대상을 담아내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불사를 통해 조성되는 성보들이 과연 현대의 시대상을 바르게 담아내고 있을까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최근 조성되는 성보들을 살펴보면 석불(石佛)들은 모두 8세기 중엽에 조성된 석굴암 본존불을 닮고, 석탑(石塔)은 또한 대부분 불국사의 석가탑을 본뜨고 있다. 그리고 법당은 콘크리트 건물로 대체되고 있으며, 단청이나 탱화들은 전통안료인 석채(石彩)를 버리고 화학물감을 사용하여 그 수명이 불과 100년도 유지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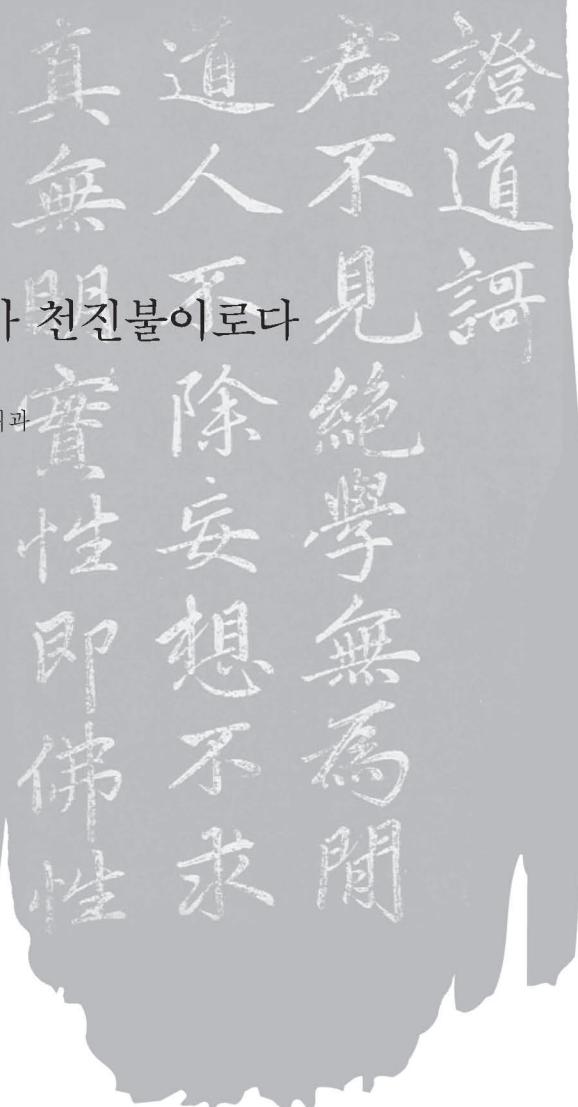
문제는 이러한 불사가 계속해서 되풀이된다면 우리시대의 성보로써 불과 일이 백년 후에 남아있을 유품도 없겠지만, 설령 남아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과연 후손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전달될지, 행여 조소(嘲笑)의 대상으로 전락하지는 않을지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다.

우리가 조상들의 덕을 보고 있다면 우리도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성보들을 물려줘야 한다. 자랑스러운 성보라고 해서 자칫 외형적 규모에만 치우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대형 불사(佛事)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전통의 계승과 현대와의 조화를 통한 재창조의 과정에는 끊임없는 고민과 시도가 뒤따라야 하겠지만 우리의 선인들이 이야기하는 성보의 핵심은 바로 '지극한 정성'에 있다.

성보의 가치는 분명 외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법한 절차와 지극한 정성이 뒷받침되어야만 그 생명력을 갖는다. 그런 의미에서 과연 오늘날 우리 불교계는 선인들이 성보를 통해 보여준 '지극한 정성'을 계승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불교용품점에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는 금빛 찬란한 불상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

## 본래의 성품 그대로가 천진불이로다

문강 / 사미니파



때맞춰 붉음을 토하고 잎마저 떨쳐낸 나무의 텅 빈 자리가 오히려 넉넉해 보인다. 자신의 시간에 충실했던 나무의 모습에서 이제는 충만함이 느껴지고, 우리의 성글었던 치문공부도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다.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는 250여명의 수행자들이 모여 한 치의 틈도 없이 꽉 짜여진 일과 속에서 많은 일들과 얹히다 보니 그냥 넘어가도 될 일들이 어느새 시비분별이 되어버리기 일쑤다. 이럴 땐 가끔은 조용한 곳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한다.

그런데 때 맞춰 난 편지 한통을 받았다. 발송자는 영가스님, 수신자는 물론 내가 아닌 영가스님에게 고요한 산에서 함께 공부하자고 글을 보냈던 현랑스님이다. 내가 영가스님이었다면 “기다리시오, 당장 달려가겠소”라고 당장 답장을 보냈을 텐데 영가스님은 오히려 “고요함과 시끄러움을 가리는 그 자체가 경계에 끄달리는 것이니 그 상태에서는 산에 있으나 도심에 있으나 수행에 아무런 진전이 없으므로 우선 먼저 도를 알아야 한다”며 도반의 공부를 염려하고 있다. 안부로 시작해 도반의 공부를 점검하고

는 이제까지 쓸데없는 말이었으니 다 읽은 후 불쏘시개나 하라며 편지를 마친 영가스님. 이 분이 바로 세간에 널리 알려진 『증도가』의 저자이시다.

영가스님은 어려서 출가하여 三藏을 두루 섭렵하고 밖으로는 외전에도 통달하였다고 한다. 원래 천태종 계통으로 天台止觀을 익혀 그妙를 얻고 항상 禪觀을 수행하였고, 천태종 8조인 左溪玄郎법사와는 동문이며 나중에 도를 성취한 뒤에도 서로 서신왕래를 하였다고 전해지니, 치문에 실린 두 편지가 그 중 하나이다.

어느 날 영가스님은 『유마경』에서 佛心宗을 깨치고 아직 증명을 받지 못하던 차에 6조 혜능의 제자

인 玄策과 함께 조계로 가서 자기의 깨달음을 인정받고 싶었다. 시홍현 조계산에 이르니 때마침 6조 대사가 上堂 법문을 하고 있었다. 이에 영가스님은 혜능스님의 주위를 세 바퀴 돌고 석장을 멀치며 그 자리에 서서 예를 갖추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았다. 그러자 혜능스님이 물었다.

“무릇 사문이란 삼천의 몸가짐과 팔만가지의 세밀한 행동을 갖추어야 하거늘, 스님께서는 어디서 오셨는데 이처럼 스스로 자부하며 오만하신가?”

“생사를 아는 것은 중대한 일이고, 만물의 생멸은 신속하고 무상한데 내 어찌 이 많은 것들을 돌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대는 어찌 불생불멸의 진리를 體證하지도 않고 무상하고 신속한 번뇌를 끊지도 않는가?”

“저는 진리란 본래 생멸이 없으며 무상은 본래 늦고 빠름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6조 스님이 기뻐하며, “불법은 바로 이런 것이다. 불법은 바로 이런 것이야!” 하며 인가하니, 대중들이 모두 깜짝 놀랐다. 그때서야 비로소 영가스님은 다시 동랑으로 가서 석장을 걸어놓고 위의를 갖추어 6조 스님에게 공경히 절을 하면서 떠나겠다는 인사를 하였다.

그러자 6조 혜능이 물었다.

“왜 이렇게 총망하 떠나려고 하시는가?”

“저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는데 어찌 총망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대에게 움직임이 없었음을 누가 알리오?”

“이는 대사 자신에게 생겨난 분별심입니다.”

“그대는 무생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도다.”

6조 혜능이 칭찬을 하자 영가스님이 되물었다.

“무생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의미가 없는데 누가 다시 이를 분별하겠는가?”

“분별 자체는 조금도 의미가 없습니다.”

“장하다. 옳은 말이다. 손에 방패와 창을 들었구나. 하룻밤만 쉬어가거라.”

이것이 바로 선종사에서 유명한 ‘一宿覺’이라는

이야기이다. 이튿날, 6조 혜능에게 하직을 고하니 대사가 몸소 대중을 거느리고 영가스님을 전송하였는데, 영가스님이 열 걸음 쯤 걸어가다가 석장을 세 번 내려치고 말하였다. “조계를 한 번 만난 뒤로 나고 죽음이 상관없음을 알았노라!”

지혜와 자비, 어느 것을 먼저 닦아야 하는가? 혹자는 지혜를 먼저 닦아야 한다고 하고, 혹자는 자비를 먼저 실천해야 한다고 하는데 영가스님은 그 둘보다 먼저 분별심을 내지 않는 마음자리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이 견해가 진리와 계합되어 두 상반되는 경계가 회통하여 그 경계로서 지혜를 밝히며, 나와 타인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각기 차별이 있으나 그 성품이 하나로 귀결됨을 알 때, 자비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공부가 밖의 경계 때문에 진전이 없음을 한탄하는 것을 영가스님은 배를 타는 법을 모르고 그 물이 굽은 것을 원수로 여기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다.

누군가 나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경이로워지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경이로움이라 …

아마도 그 경이로움이란 영가스님의 말씀처럼 분별이 없는 마음으로 어느 곳, 어느 때에나 내 공부 도량이 아닌 곳이 없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것이 아닐까 한다. ●

법신은 一物도 없음을 깨달으니  
본래의 성품 그대로가 天真佛이로다.  
五蘊의 뜬구름 속절없이 소가고,  
물거품 같은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이  
헛되이 들고 난다.  
몇 번을 태어나고, 몇 번을 죽었던가.  
생사는 길고 길어 그칠 날이 없구나.  
문득 깨달으니 삶조차 없는 것을  
모든 영욕에 어찌 근심과 기쁨 있으랴.

『證道歌』 中

## 설해(雪害)

도종환 / 시인



시베리아에서 밀려 내려온 차가운 공기가 겨울하늘을 덮고 있습니다. 빙판이 된 고갯길을 이슬아슬하게 지나온 뒤 더 갈 수 없는 길에서 차를 세우고 눈길을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차 안에 신고 다닌 등산화로 갈아 신고 산방을 향해 눈길을 걸어 내려가다가 뒤를 돌아다봅니다. 혼자 산 속에서 밤을 지새야 하는 건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겁던 엔진은 서서히 식어가다 밤새 꽁꽁 얼어붙을 것입니다. 차도 나도 정지된 채 냉각되어가는 기관들을 바라보며 이 밤을 지낼 것입니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길을 걷다 보니 등산화 속으로도 눈이 들어옵니다. 얼마 걷지도 않았는데 양말이 젖기 시작합니다. 젖은 발로 눈 위에 발자국을 찍으며 걸어갑니다. 내 발자국 외에는 아무 발자국도 없습니다. 짐승들도 모두 눈을 피해 굴속으로 들어가 꼼짝 안 하고 눈과 한파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눈이 그치면 골을 나온 고라니나 옛돼지가 내 발자국과 제 발자국을 전주에 보고는 코를 킁킁 거릴 것입니다.

젖은 양말을 벗어 말리고 난로에 불을 지피기 위해 뒷마당에 장작을 가지러 가다 바라보니 소나무 허리가 심하게 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설해에 가지가 찢어져 끈으로 칭칭 감아주었는데 올 겨울에도 또 설해를 입게 생겼습니다. 산 속에 있는 다른 나무들과 달리 소나무가 주로 설해목이 되는 것은 솔잎 때문입니다. 바늘 같은 솔잎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한겨울에도 푸른 잎을 지니고 있어서 잎들 위에 눈이 쌓이고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 허리가 부러지거나 가지가 찢어지곤 합니다.

지난 겨울에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바닥에 눕다시피 쓰러졌던 대나무들은 끝내 일어서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사람들도 저 나무들처럼 버리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버릴 수 없는 푸른 빛과 같은 것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모진 고생을 하면서 얻었던 어떤 경험, 눈물을 흘리며 자신과 했던 약속, 사람 때문에 했던 맹세, 빼저린 후회를 하면서 가슴에 새긴 다짐, 실수와 좌절을 겪으면서 몸에 밴 태도, 오랜 수련을 통해 얻은 지혜, 면길을 돌아와 다시 만난 제 마음 속 뿌리 깊은 선근(善根)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도 솔잎처럼 가늘고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크고 거창한 것도 아닌 이 작은 것들 때문에 설해를 입는 때가 있습니다. 잠시 눈 감고 모른 체 하고 있으면 되는데 그 짧은 순간을 견디지 못하게 합니다. 한번만 눈 질끈 감고 타협하면 세리분화(勢利紛華)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게 합니다.

제가 교육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경찰서에 잡혀갔을 때였습니다. 변호사가 찾아와 각서를 쓸 것을 권유했습니다. 눈 딱 감고 각서 한 장만 쓰면 내보내 준다는 제의를 가지고 왔습니다. 나 혼자 빠져나가자고 차마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날은 아버지가 면회를 오셨습니다. 각서인지 뭔지 빨리 써 달라는 대로 써주고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다른 사람과 처지가 다르지 않니? 어미 없는 어린 자식 둘을 누가 돌보라고 그러냐. 애들을 고아처럼 팽개쳐 두고 감옥살이를 할 거냐? 네 새끼를 네가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 늙은 우리더러 책임지란 말이냐?” 그러시면서 저 사람들이 써 달라는 대로 각서를 쓰지 않으면 부자간의 의를 끊겠다고 하셨습니다.

많이 괴로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양심이 무엇인지 그것 하나를 버릴 수 없어서, 비겁할 수 없어서, 저는 다음 날 아침 포승줄에 묶여 교도소로 실려 갔습니다. 호송 차량이 경찰서 담을 돌아갈 때 울고 계시는 어머니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아니 그때 가슴은 찢어져 설해목이 되었습니다.

지난 해 찢어진 소나무 가지를 끈으로 칭칭 감아 매면서 내 상처를 싸매준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부리져 죽어간 나무들도 많은데 상처를 싸매고 살아 있는 게 다행이다 싶습니다. 소나무에 얹힌 눈을 털어내다 떨어진 솔잎 하나를 손에 쥐어 봅니다. 가늘고 가는 일 하나. 이걸 버리지 못하는 나무를 한 번 더 올려다 봅니다. 겨울 산에 푸른 것은 소나무류와 조릿대뿐이라서 설해를 입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런 푸른빛마저 없다면 겨울 산은 젯빛의 삭막한 풍경으로 뒤덮였을 것입니다. 매서운 바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저 매서운 바람으로 몸을 씻으며 별들은 더 밝고 밝을 것입니다. 그믐이 지난 지 며칠 되지 않은 밤이라 눈썹달도 짜랑짜랑 은빛을 뿜어내며 떠 있을 것입니다. ●

## 승려노릇과 취미생활 사이에서

원철 / 조계종총무원 기획국장



절집에 와서 그래도 좀 제대로 한 것이라고는 '경전보기'와 '글쓰기' 밖에 없는 것 같다. 별다른 취미도 없고 능한 잡기(雜技)도 없어 '승려노릇 하기는 딱이다'라는 도반들의 농반진반의 빈정거림도 더러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도 취미를 가져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하긴 늘 '직업적'인 일만 하고는 살 수는 없다. 아무리 전문음악가라고 해도 24시간, 365일 내내 그 일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아무리 남들이 수행자라고 불러주긴 하지만 그 렇다고 해서 늘 도 닦는 일만 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그래서 골라낸 취미가 '건축'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삽을 들고 땅을 판다거나 손수 흙벽돌을 써내겠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땀나게 봄을 움직이는 것을 체질적으로 싫어하고 또 유판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취미인 건축은 정확히 말하면 '건축책 읽기'라고 하겠다. 우선 건축 관련 서적은

그림과 사진이 많다. 그래서 부담 없이 책장이 넘어간다. 그리고 설사 그 분야에 문외한이라고 할지라도 한글만 알면 대충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 써놓은 교양입문서 수준의 저서들이 꽤나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빈둥거릴 때마다 심심풀이로 읽어낸 책들이 쌓여 이미 넓은 벽면의 책장 일부분을 보란 듯이 차지하고 있다. 한옥, 양옥, 퓨전집을 가리지 않았고 종교건물, 살림집, 공공건물, 사무실, 빌딩 등 분야의 차별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보니까 집을 한채도 지어 본 적은 없지만 '눈 명창'이 되어 남들 짓는 걸 곁눈질하면서 '이건 아닌데' 하며 자주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그리고 여기저기 남의 집들을 오해(?)받지 않을 만큼만 기웃거리며 살피게 되었다.

'佛事'라고 하면 생각나는 어른이 있다. 영암큰 스님이시다. 거의 '전설적인 주지'로 해인사 대중에게 각인되어 있다. 얼마나 공금과 개인 돈을 철저하게 구별하셨는지 호주머니에 공금은 두툼하게 있었는데 개인 돈이 한 푼도 없어 대구에서 해인사까지 걸어오셨다는 어른이다. 그 분이 늘 대중들에게 하셨다는 말씀이 "고래 등 같은 기와집에 유리알 같은 장판에..." 그 다음은 뻔하다. "그런데 왜 공부 안하나?" 다행히도 그 잔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었다. 내가 출가한 이듬해에 열반에 드셨기 때문이다. 최초로 참여한 국장(國葬) 수준의 다비식이었다. 그 '고래 등 같은 기와집, 유리알 같은 장판'은 그 어른의 건축觀이었다. 그건 아직까지 절집 건축觀의 대세이기도 하다. 그 덕분에 대궐 같은 큰집에서 후학들이 품 나게 살고 있다.

그리고 정말 큰집이 될 뻔했던 '해인사 신행문화도량' 일을 거들어주면서 내로라하는 이 땅의 건축대가들 그리고 문화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숙의할 기회를 가졌다. 함께 유럽과 일본의 '명작건축'들을 보러 다니는 호사까지 누렸다. 시절인연이 닿지 않아 결국 설계도만 남기고 미완성으로 끝났지만 '건축'이 취미였던 나에게는 안목이 좀 더 넓어지는 시간들이었다. 전통성당의 형식을 원용하여 현대적 수도원을 만들어낸 프랑스 건축가 르 고르비제의 작품<sup>1)</sup>과 노출콘크리트 건축의 원조인 일본의 안도 다다오의 걸작인 '물의 사원'<sup>2)</sup>도 친견하면서 단순한 복원뿐만 아니라 시대를 함께 호흡하며 신구(新舊)의 전이(轉移)과정을 거친 창조적 건축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언제부턴가 공적인 큰집보다는 사적인 작은집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대찰보다는 아기자기한 작은 절들에 더 관심이 갔다. 그리고 살림집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냄새와 손때가 켜켜이 쌓여있는 격조 있는 아름다움에 관심이 갔다. 젊은 날에는 크고 장대한 것을 좋아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꿈의 부피와 내용이 줄어든 까닭일 것이다. 또 그런 암자와 작은 집은 사는 사람의 삶과 사상이 투영될 수 있고 그 사람의 의지대로 모든 것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사(寺)라는 명칭보다는 암(庵)이나 정사(精舍) 또는 아란야(阿蘭耶)라는 현판에 더 눈이 간다. 초당(草堂) 또는 재(齋)라는 글자도 더없이 정겹다. 초당 또는 아란야는 절집의 원형이다. 바위굴 나무 밑에서 수행하던 시절을 지나, 그 뒤 열기설기 위어서 비바람을 피할 정도의 그야말로 '토굴'이었다. 이것도 세월이 흐르니 이제 토굴은 '안가(安家)'의 성격이 더 강해져 그 고유의 의미가 상실되어버렸지만... 최근 취미로 읽은 건축교양서에서 찾아낸 말이다. 큰집인 '옥(屋)'은 '시(尸)'와 '지(至)'로 풀

어썼고, 작은 집인 사(舍)는 인(人)과 길(吉)의 합성 어라고 했다. 이것은 인간이 죽음에 이를 때 까지 살아가므로 옥(屋)이라 하고, 예나 지금이나 사람에게 좋은 것은 소욕지족(少欲知足), 욕심을 줄이면 만사가 절로 길한 것이니 작은 집(舍)이 길하다는 것이다. 하긴 큰절에는 대중이 살아야 하고, 큰집에는 많은 사람이 살아야 한다. 식구도 없으면서 지나치게 큰 평수를 사용한다면 결국 그 사는 사람에게도 별로 좋지 않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무난할 것 같다. 하긴 동수(棟數)만 많고 대중이 없는 절이 주는 셀렁함은 익히 경험해온 터이다.

이즈음 서울북촌<sup>3)</sup>에서는 작은 기와집 보존 작업이 한창이다. 걸핏하면 헐어내고 연립주택을 지어 세를 놓아버리는 경제논리의 만연은 마을전체의 부조화와 불균형을 낳게 되었고 이에 뜻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 '한옥 살리기'라는 문화운동으로 이어져가고 있다. 이제 그 기와집은 한옥사무실, 소형아트숍, 작은 미술관, 커피점 심지어 와인바 등으로 변신하면서 한옥 특유의 푸근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있다. 젊은 건축가들에 의하여 또다시 '퓨전한옥'으로 변신하고 있는 중이다.

《가(家)》라는 책을 구했다. 우리시대 교양인들이 사는 스물두 집을 사진과 글로 묶어놓은 것이다. 중앙일간지에 연재되었던 것인데 그 때는 제대로 몇 편 읽지도 못했다. 단행본으로 나왔으니 팔품을 팔지 않고 한가하게 누워서 세월과 집주인의 인격이 녹아든 격조 있고 아름다운 집을 두루 산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 시간 나는 대로 몇 페이지씩 읽어 내릴 예정이다. 건축에 관한 새 책을 손에 쥔 날은 괜히 행복해진다. ●

원철스님은 해인사승가대학 중강, 실상사 화엄학원 강사, 월간해인 편집장을 지냈다. 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을 거쳐 현재 총무원 기획국장 소임을 맡고 있다. 번역서에 『선림승보전(禪林僧寶傳)』上·下(장경각刊)가 있다.

1) 프랑스 건축가인 르 고르비제는 도미니코 수도회의 꾸드리에 신부의 부탁으로 현대식 건물인 '라 뚜레뜨' 수도원을 창조적으로 지었다. 이 수도원의 원형은 13세기에 지어진 '또로네' 성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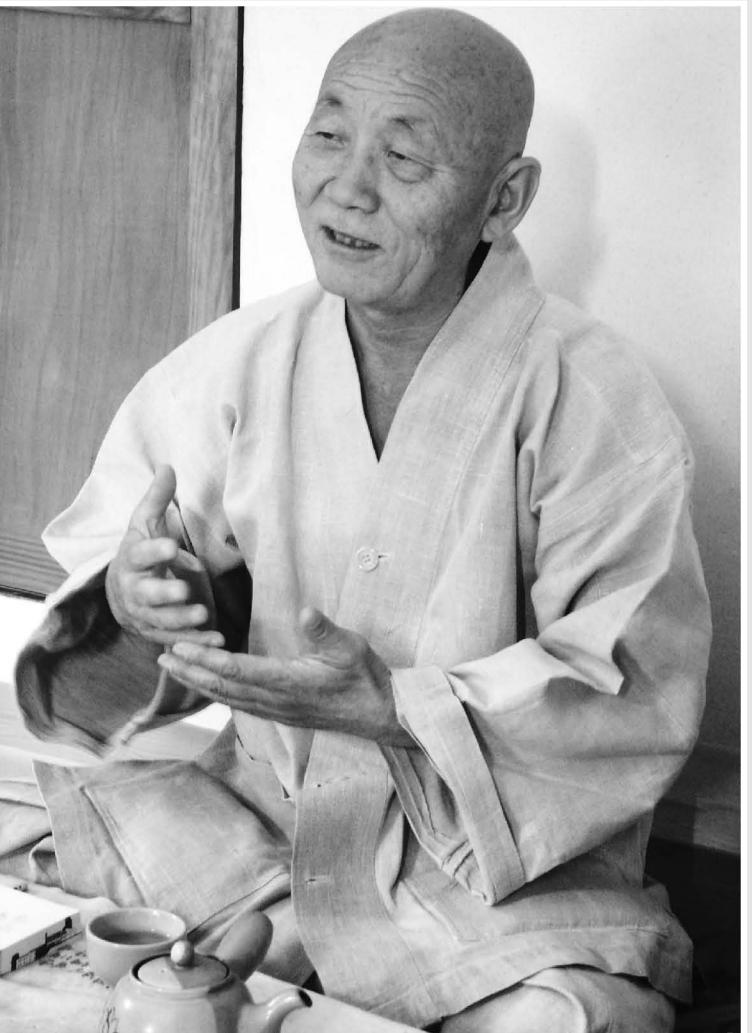
2) 일본의 건축가 안도 다다오의 작품인 쿄오베(神戸)의 본복사(本福寺) 수어당(水御堂)은 일명 '물의 사원'으로 불린다. 땅과 별 차이가 없는 넓은 연못지붕에 연꽃을 심었고 법당을 지하로 처리한 건물이다.

3) 서울북촌은 경복궁 사이 인왕산 아래 소규모 한옥기와집이 밀집되어있는 동네를 말한다. 행정구역으로는 종로구 삼청동, 가회동, 인사동 인근지역을 말한다.

## 죽기 살기로 한번 해봐

- 암도 쿤스님을 뵙고 -

법 철 / 사교과



전라도의 포근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백양사로 우리는 30년 세월동안 6000회나 되는 설법을 하신 이 시대의 포교제일 암도 쿤스님을 뵈러 새벽부터 서둘러 길을 떠났다.

마음마저 풍요로워지는 가을 들판 길을 달려 오후 2시쯤 도착한 백양사. 절 입구의 단풍은 이방인을 반기듯 뜨거운 기습으로 우리를 안는다.

스님께서 주석하시는 청량원은 백양사에서 150미터 떨어진 우뚝 솟은 바위산 밑에 자리하고 있다. 우리가 찾아 간 그날은 마침 스님의 생신이어서 손님들이 많았다. 우리는 죄송한 마음과 더불어 우리를 만나 주실까 하는 불안이 앞섰다. 하지만 스님께서는 전혀 바쁜 기색도 없이 따뜻한 미소로 반갑게 “내가 이럴 때 아니면 붙어있지도 않아” 하시며 흔쾌히 우리들을 맞이해 주셨다.

“그래 물어봐. 학인 때가 좋지. 가장 거짓 없고 힘차지. 스님은 법명이 뭔가?” 하시며 손수 수첩에 우리들의 법명을 꾹꾹 눌러 적으시고 차를 한잔씩 권하시는 스님의 모습에 긴장이 조금 사라졌다.

### 포교를 해야 하는 이유

“한국불교의 현실이 산중불교의 탈을 못 벗어나. 禪, 禪 해서 다 산중으로 가. 그러면 사회에 있는 신도들이 다른 종교로 가버려. 그럼 그 좋은 사람들이 전부 거짓말에 쌌여 가지고 국민성 개조가 안 돼. 수도를 했으면 수행을 해야 되잖아. 수도는 자기완성이고 수행은 사회완성인데 자기완성만 시킨다고 만날 앉아서 참선하고 계율만 지키면 그것이 되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수도는 소승적이지만 수도 과목인 37조도품 대로 해야 되고 수행은 보살행인 6마리밀, 10마리밀 대로 행해야 되는 거야. 길을 닦았으면 다녀야 되잖아. 길만 닦고 앉아 있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 혼자 듀각 불로 끝나버리니까. 바탕이 없는 불교는 스스로 벽을 쌓는 거야. 그래서 포교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시대적 사명이고, 또 부처님 은혜를 깊은 길이기도 하고. 그래서 시작한 건데, 한 30년쯤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6000번쯤 돌아 당

겼더라. 그리고 나니까 이제야 조금 알겠어. 한 없이 나는 부처님 은혜로 배워가지고 부처님 은혜에 보답한다고 알아주거나 말거나 죽기 살기로 한번 해 봤지. 포교하려면 그런 각오가 아니면 안 돼. 이유 없이 대·소승을 겸해야 해.”

쿤스님께서는

죽기 살기로 몸도 돌보지 않으시고 30년 동안 법문을 하신 탓에 人毒으로 인해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다 한다. 하지만 다시 몸이 건강해 지면 자신을 원하는 곳은 어디든 가겠다는 말씀에 포교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 설법자의 자세

“어렸을 때 어느 절에 가면 느닷없이 법문하라고 시키면 앞뒤도 없는 소리하고 그랬는데 … 법문하는 자세라고나 할까? 옛날처럼 하면 안 돼. 그때는 ‘내가 너희들을 가르친다, 기죽지 않으려면 상대를 무정물로 취급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제는 다 알아. 듣는 수준이 높아져서 설법하는 사람이 그렇게 교만하면 대번에 거부 반응이 와. 그러니까 항상 편안하게 해야 돼. 친구다, 상대가 나와 같다고 해야지 공감대가 빨리 형성이 돼. 대화하는 식으로 부담 없이, 21세기는 쉽게 해야 돼. 잘 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억지로 못하는 척 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면 잘 돼. 그 대신 많이 해야 돼. 할 일이 없으면 나무한해도 가서 하고, 자꾸 하다 보면 나무가 끄떡끄떡 해. 사실은 바람에 끄떡끄떡 하는 건데 … 내 말을 잘 듣는 것 같아.(모두 웃음) 그렇게 되든 안 되든 자꾸 해야 돼. 그리고 체력 관리를 잘 해야 돼. 힘이 없으면 상대가 받아들이는 것이 약해. 아무리 지식을 떠들어 대도 안 돼. 그러니까 밤이 되면 자지 말고 정진해야 돼. 子時에 가만히 일어나서 한 4~50분 그냥 앉아 있다가 자도 돼. 꼭 참선한다고 할 것도 없고, 그러면 자동으로 호흡이 되잖아. 그리고 포교는 확실히 알고 자신 있게 해야 돼. 자신이 없으면 항상 속이 허해

서 못살아. 자기 발견이 돼야 해.”

스님께서는 지식만을 떠들어대는 포교는 진정으로 대중을 감화시킬 수 없다고 강조하신다. 우선 내 자신의 입지가 확고하게 서야 설법함에 힘이 있고 진정한 교화가 된다고 거듭 말씀하셨다.

## 신앙심

“한국 불교가 자력만 강조하다가 타력을 놓쳤어. 신앙체계가 무너진 거야. 물론 참선을 해야 돼. 참선을 하지 않으면 자력이 약해. 그러면 타력도 약해져. 자력이 강했을 때 타력이 금이 들어오지. 내가 200볼트인데 1000볼트가 들어와도 안 돼. 감당을 못하니까. 피아프가 커야 물이 많이 들어오지. 신앙심이 없으면 종교인이라 할 수 없어. 신앙은 종교인으로서 필수적으로 가져야 할 사항 이야. 신행과 신앙이 하나가 돼야 해. 머리 깎고 으레 하는 그런 짓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견성성

불은 안 돼. 기도하는 생활, 신앙생활이 없으면 자기 한계를 절대 벗어날 수 없어. 큰일에 부딪쳤을 때는 응신을 못해. 그것이 촉도성체(觸途成滯)야. 꽉 막혀서 꼼짝 못하는데 거기서 주저앉으면 좌절로 끝나버려. 자살, 도피, 회피, 한탕 그것밖에 할 일이 없잖아. 그때 필요한 것이 신앙이야. 철저하게 자기반성을 하고 검토하고, 거기서 다시 관세음보살님을 부를 때 길이 열리는 거야. 그리고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 꼭 ‘님’자를 붙여야 돼. 만 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해도 한번 ‘관세음보살님’ 하는 것만 같지 못해. ‘님’자가 안 들어가면 힘이 들어오지 않거든. 그 이유는 생각 하나에 전체가 작동되는데 내가 ‘김 선생’ 하는 거랑 ‘김 선생님’ 하는 거랑 다르지? 감이 다르잖아. 관세음보살님도 자기를 존경할 때 힘을 주지,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고 건방지게 하면 … 이게 상식이야 상식.”

## 공경

“지금은 사랑시대니까 사랑은 주면 받고, 받으면 주는 시대잖아. 주고받는 그런 정신세계는 아

주 평준화를 시키는 거야. 사랑 때문에 망하는 거야. 부모나 스승이나 원수라도 공경해야 되는 거지. 법화경 상불경 보살품을 보니까 상대를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무조건 존경하고 공경하면 엄청난 힘이 자연에서 와 버리잖아. 好氣가 작동이 되는 거야. 공경한다는 것은 가장 정직한 거야.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남을 공경할 수가 없어. 미워하거나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면 미워하게 돼. 정직하고 진솔하고 누구라도 공경하면 자기 이익이야 그게. 증애심을 가지면 중생이 되어 버려.”

점점 각박해지는 삶 속에서 배려와 공경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일각 하신다. 요즘 흔히들 사랑을 외치지만 진정한 사랑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공경이 빠진 혓된 빈껍질만 가지고 사랑을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과연 타인을 내 몸처럼 아낄까?

## 학인의 본분

“학년이 올라가면서 相이 생기는데, 그건 장애가 아니야. 나쁜 것이 아니고, 과정일 뿐이야. 우리 어렸을 때 학교 교장선생님이 단상에 올라오기만 하면 익은 뼈는 고개를 숙인다고, 만날 숙이라고 했지?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한참 크는 놈이 고개 숙이면 죽어 볼지. 천지도 없이 쑤시고 올라와야지. 다 커서 알이 차서 숙여야지. 쪽정이가 무슨, 어떻게 숙인다니. 속이 있어야지. 덜된 생들이는 생들이 대로 맛이 있어. 학인이 점잖으면 징그러워서 쓰겠나? 지지고 볶고 해야지. 거기서 같고 닦고… 나도 몇 번이나 나갔다 들어왔다.(우리 모두 웃음) 내부에서 틀어지면 달아나기도 하고, 대중 공사 당해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래야 후회도 하고, 침회도 하고 그러지. 그냥 가만히 점잖게 앉아서 있다 가면 무슨 맛이여. 많은 굴곡이 있어야 돼. 절대로 걱정하지 마. 학인 때는 학인답게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정진하면 돼. 대신 시비를 하거나 남을 미워하면 자기 기운이 그쪽으로 간다는 것을 알아야 돼. 생각만 해도 간다니까! 시

비가 가장 나쁜 거야. ‘參陪清衆하야 論說是 非인 故 全無利益이니라’ 해 놓고는 아~ 첫 장도 모르니 그걸 어디가 쓰나고. 아무 쓸모가 없는 거야. 그리고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다고 그랬어. 그러면 떡을 더 주면서 미워할 순 없잖아. 그게 자기 절제의 최선이야. 또 뭐라고 했지? 아~ 잘 조는 거? 안 졸려고 무릎이 까지고 발톱이 빠지고 하는 그런 것은 초창기에 하는 거야. 원숙해지면 다 필요 없는 거야. 확고한 신념으로 돈오돈수 하는 거야. 그게 힘을 기르는 거지. 힘이 있으면 안 좋아. 힘이 없어서 그래. 힘이 넘치면 눈이 똥그래지는데 …”

## 후회할 것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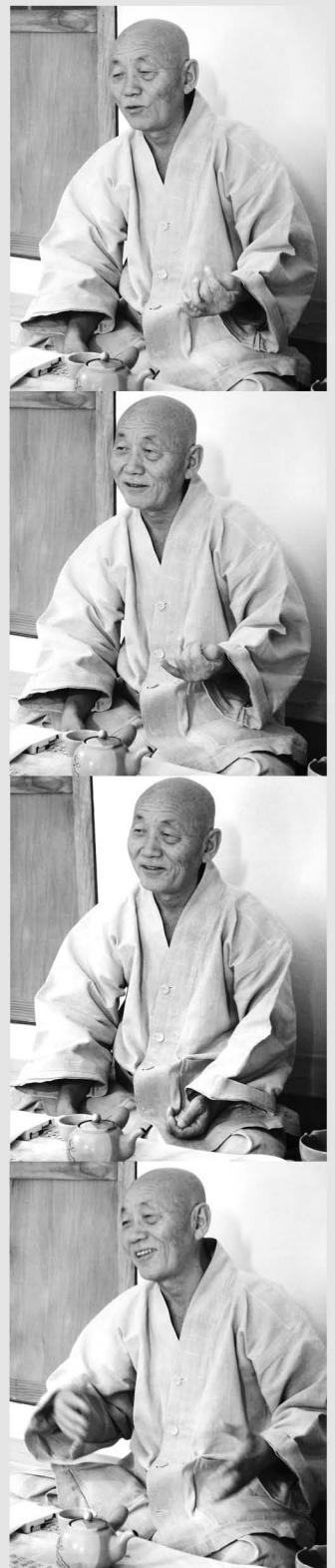
“지나간 건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그래서 잘못한 건 절대 나무리지 않아. 이미 잘못한 걸 어떻게 할 거야. 인연이 그렇게 된 걸 어떻게 할 거냐고. 태고난 것도 감사해. 부처님, 부모님 덕이야. 감사할 뿐이지. 지금도 부처님 덕으로 공부했으니까 후회할 것 없잖아. 그럼 다음 생에도 중노릇 해야지. 기어이 한번 해 봐야지. 부처님은 8천 번을 태어났다고 하잖아. 근데 지금 몇 생인지도 모르는 것이 까불라고 해봐야 … 허허.”

가난하게 태어나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쭉 세벽잠 설치며 신문배달 한 것이 자동으로 호흡조절하게 해준 고마운 일이라며 웃으시는 스님의 모습을 보며 ‘과연 나는 지나간 일을 얼마나 후회하고 있던가.’ 잠시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부루나는 부처님께서 수로나국 사람들의 성품이 거칠고 흉악하며 그를 비방하고 모욕할 것이라고 한 말에 이렇게 대답한다. “그들은 현명하고 또 인정이 많으므로 칼로 저를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칼로 만약 해친다 해도 그들은 현명하고 인정이 깊은 사람들이므로 죽이진 않을 것입니다. 혹 저를 죽인다 해도 나의 육신을 죽여주어 나로 하여금 육신의 속박에서 벗어나도록 하여 주었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큰스님께서는 어찌 이러한 수난이 없었겠는가. 지금까지 크고 작은 법회를 여시어 미혹에 가려진 중생들을 끝없는 인욕과 공경하는 마음으로 제도 하셨으리라. 자신을 한없이 내려 놓았기 때문에 수많은 근기의 사람들을 만나 자유자재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지 않았을까. 농담처럼 쉽게 던지시는 말씀 속에서도 되새길수록 입가에 미소를 머금게 하는 깊이가 있다. 말뿐이 아닌 앓고 일어나고 숨 쉬는 그곳에서도 스님의 자비심이 느껴졌다. 그래서일까? 고희를 바라보는 지금도 끊임없이 스님을 찾는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스님 역시 그들을 찾아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실 것이다.

생동이가 언젠가는 알차게 영글어 중생들의 허기를 채워주는 선열미가 될 수 있기를 발원해 본다. ●



## 겨울 산에서

진 광 / 운문사 강사



어린 시절부터 산을 좋아했다. 산골마을에서 태어났고 산새나 산 짐승들처럼 산속에서 놀았다. 끝내 출가해서 산으로 들어왔고, 지금도 산에 살고 있다. 때론 산에 살면서도 산이 그립다. 하이쿠 시인 바쇼가 “나는 교토에 있어도 교토가 그립다!”고 노래한 심정을 알겠다. 어떤 높은 산에 올라가도 두렵지 않다. 산에 올라가면 마치 내 안식처와 같이 편안하고 안온하다. 산에서 부는 바람은, 삶은 바람소리와 같다고 나에게 귀 기울여 살 것을 당부한다. 가지마다 온갖 새소리와 골짜 물 절절히 흘러가는 소리, 솔숲에 바람 일렁이는 소리, 적막강산에 어둠이 내리는 소리, 밤별이 맹글맹글 구르는 소리가 들린다.

며칠 전, 겨울 짐장을 마치고 금강산엘 다녀왔다. 2006년 금강산 신계사 복원 남북공동 낙성식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155마일의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지나 남측과 북측의 검문소를 통과하여 온정리 외금강에 도착했다. 금강산은 이제 막 풍악산에서 개골산으로 몸 바꾸는 중이었다. 날씨는 더 없이 맑고 기운은 청량하였다. 경쾌하고 시원하

게 떨어지는 폭포와 사사사철 푸른 담(潭)과 소(沼)를 감상할 수 있다는 구룡연 코스. 목란관에서 점심 공양을 하고 수립대 → 양지대 → 삼록수 → 비봉폭포 → 연주담 → 금강문 → 옥류담을 지나 구룡폭포 까지. 곧게 쭉쭉 뻗은 청청한 금강송과 옥구슬 같은 물빛, 선녀들이 내려와 춤을 추고, 신선들이 노닐었다는 금강산의 봉을봉을 봉우리들. 내 안에 겹겹으로 쌓인 먼지를 털어낸 듯 시원했다. 총암절벽과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만물상은 금강산의 절정이자 백미다. 만상정 → 삼선암 → 귀면암 → 절부암 → 안심대 → 하늘문을 통하여 천선대까지 올라갔다. 칼로 잘라 놓은 듯한 천인단애의 절벽과 바위들 … 온 우주의 기운이 다 모인 듯 했다. 천기(天氣)와 지기(地氣)를 가슴 속 깊이 흡흡하였다. “금강에 살으리랏다. 금강에 살으리랏다. 운무 더리고 금강에 살으리랏다. 홍진에 썩은 명리야 아는 체나 하리오.” 노래가 절로 생각나 가만히 흥얼거렸다. 누구나 여기 오면 이런 마음이 들리라.

금강산에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살고 있었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사랑을 하고 … 남북을 오고가며 시집 장가를 갔던 한거례. 큰집, 작은집, 한집안 식구들. 북녘과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다. 어떤 다른 나라도 한 핏줄만 같을까. 총칼을 들이대고 싸움질을 했어도 피는 물보다 진한 법이다. 36년 동안이나 총칼로 우리를 짓밟았던 일본과도 우방으로 살고 있는데 하물며 한 민족끼리겠는가. 나라가 하나가 되면 제일 먼저 금강산 마하연에 가서 앉아 보리라. 시간이 되면 또 함남 도안까지 가는 기차표를 끊어서 그 곳 플랫폼에 서서 썰쩔 끊는 귀리차의 맛도 보아야지.

고요히 겨울 운문사를 보듬고 있는 산을 바라본다. 겨울 산은 지난 계절의 화사한 색조를 잃고 단조로운 회색으로만 보인다. 산사를 떠나 산 오솔길을 걸어본다. 가까이 다가간 겨울 산은 멀리서는 볼 수 없던 것들을 보여준다. 오솔길 옆 바위에 앉아본다. 그 자리에 앉기 전에는 들을 수 없었던 온갖 산의 소리가 들려온다. 숲이 용얼거린다. ‘무설설 무문문(無說說 無聞聞)’의 이치를 산에 오면 더욱 확연히

느낀다. 청설모들이 찍찍댄다. 낙엽 뒹구는 소리, 멀어져 가는 발자국 소리, 금 사이로 뭇가가 굴러가는 소리, 나뭇가지 위에서 들려오는 새소리. 내가 가만히 앉아 있자 내 발자국 소리에 놀라 날아간 새들이 좀 전에 앉았던 가지로 다시 날아든다. 날다람쥐와 딱따구리도 다가온다. 날다람쥐는 휘청거리는 가지들을 발과 꼬리로 부여잡으며 이리저리 잘도 날아닌다. 저 찬 바람 쟁쟁 대는 허공에서 뭇가를 열심히 구하고 있다. 날다람쥐는 자기 몸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가지들을 정확하게 가려서 잡는다. 딱따구리는 쉴 새 없이 나무껍질을 쪼아댄다. ‘딱딱딱’ 소리가 나더니 우루루 작은 나무껍질들이 내 머리 위로 떨어진다. 날다람쥐가 가지 사이를 날아다니고 딱따구리가 나무껍질을 쪼는 모양을 살펴보면 그들은 자기의 일에서 높은 경지를 이루었다는 것이 느껴진다. 한 소식 한 것이다! 그들뿐만 아니라 땅을 기어 다니는 개미나 땅강아지, 산에 사는 온갖 크고 작은 짐승과 미물들도 자기들만의 일에 온전히 몰입해 살고 있다.



겨울 산에서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며 나의 생활을 떠올려 본다. 나는 정말 나의 일에 충실한가? 나는 나의 일에 저들만큼 능숙한가? 몰입하는가? 나는 부처님의 길을 간구하는 학인 스님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과연 내가 그들에게 부처님의 참뜻을 정확하게 전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 학인 스님들의 그 소중한 시간을 잘라 내어 오지만 그 시간 동안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데 서툰 것은 아닌가? 나는, 가느다란 가지 사이에서 한 번도 떨어지지 않는 날다람쥐 만큼도 날렵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나무 구멍을 찾아 쪼아대는 그 딱따구리만큼 자신에 차 있지 못하다. 그들 앞에서 나는 늘 부족한 스승이다. 내가 지금 이곳에서 하는 일만큼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 없다. 지금 이곳에서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따름이지 그 밖에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산사의 뒷산에 와서

나를 돌아보니 저 날다람쥐와 딱따구리에게 더욱 부끄러워진다. 온갖 존재들이 제각각 자기 일에 몰두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곳. 겨울 산은 참 많은 깨달음을 전해준다. 빤 겨울 산이 화사한 봄을 예비하는 희망의 공간이듯, 내 삶도 비운만큼 충만하고 깊어져 가고 싶다.

깊은 산사에서 오롯이 한 조각 단심(丹心)으로 살 아간다는 일은 얼마나 깊고 뜨거운 결심이 필요한가. 신앙이나 신념… 그리고 맡은 일! 구도자의 길에서 나답게 산다는 것.

천추님연(千秋凜然), 겨울 산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요히 좌선하는 구도자와 같이 뉘연하다. 맨 몸으로 온갖 눈보라와 찬바람을 막아내는 용사와 같다. 진정코 순수한 삶을 살고 있다. 집착 없는 구도행이야말로 진정코 순수한 삶의 추구라고 믿는다. 한 가지에 집착하여 오매불망하는 삶은 결코 순수하거나 맑지 못한 것이다. 무엇이든 취고 있는 모든 것을 언제든지 버리고 떠날 수 있는 무소유, 자유의 용기 같은 것. 겨울 산을 보면 가끔 그런 꿈을꾼다. 보다 간소해지고 단순해지며 소박해질 수는 없는 것인지… 나와 내 소유가 없다는 것을 여실히 깨닫고 바람처럼 자유로운 영혼이 될 수는 없는 것인지… 겨울 산의 나무처럼 구도자적인 고독이야말로 진정한 무소유다. 고독한 자만이 가장 자유로울 수 있다.

난 지금껏 너무 많은 말을 했으나 실천에서는 참으로 더뎠고 부족했다. 하루 세끼 굽지 않고 시린 새벽 찬 바람에 무한천공의 별을 바라보며 지극한 마음으로 나를 낮출 수 있으니 족하지 않은가. 세속적 욕망에서 벗어나 진리의 삶을 꿈꾸는 자만이 실천할 수 있는 구도자의 길. 그들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걸어갈 수 있으니 행복한 삶이 아닌가. 더 무엇을 구하겠는가. 무슨 욕심을 더 부릴 것인가. 지금 이 순간이 영원이다. 솔바람 소리 청명하다.

## 온 아례 삼만염 사바하

(가족을 화합하게 하는 진언)

편집부



“가족이란 즐거울때를 만나 함께 즐거워하고  
괴로움을 당하면 같이 괴로워하며  
일을 할 때에는 뜻을 모아 함께하는 것이다”  
- 잡아함경-

이러한 불교 담론에는 이중적 자세가 항상 존재한다. 많은 서구의 중산층 사람들이 온갖 서구적 가치와 문화를 누리면서도 지극히 자본주의적이고 소비적으로 동경하는 곳이 바로 티베트다. 하지만 가치체계가 불교적이지 않은 이상 대안으로서의 삶은 마치 벽에 걸린 그림 액자와 같은 것이다.

## 스님과 PSP

정 완 / 대교파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 국적 불명의 하얀색 승복을 입은 동양의 젊은 스님이 고요히 명상을 하고 앉아 있다. 그런데 손에 들고 있는 것은 PSP(Play Station Portable, 일본 SONY사의 휴대용 게임기)다.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PSP의 새로운 버전인 Ceramic White PSP의 지면 광고는 현재 서구 사회에서 바라보는 불교에 대한 이미지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종교를 소재로 한 대부분의 광고들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불교는 쏙 빼진 채 광고 전달의 메시지만 남는다. 그러나 하얀색 승복에서 알 수 있듯이 서구 사회에 있어 불교는 그 종교학적 엄밀성이 무시된 채 불교의 이미지만을 차용하여 잘못 재편성되는 경우가 많다. 불교에 대한 이해보다는 낭만적인 오해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특히 서구 사회에서 ‘유행’과 같이 퍼지고 있는 불교는 후기자본주의 소비사회의 가장 중대한 이데올로기가 되어가고 있다. ‘무아론’과 ‘금욕’의 담론으로 소위 서구의 이기주의적, 개인적 해체 문화에 대한 대안으로 언급되기 시작했던 불교가 역설적으로 후기자본주의 소비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비주체인 중산층의 욕망이라는 이름으로 상품화, 자본주의화 되고 있다.

사실 서구에 가장 먼저 알려진 불교 중의 하나인 일본 선불교의 경우 종교심리학적, 현상학적, 실존철학적 수사학과 함께 중요한 포교의 전략으로써 명상불교의 이름을 내세워 불교를 ‘심미화’ 하였고 이것은 후기자본주의 사회 중산층들의 ‘욕망’을 겨냥한 일종의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이 되었다.

이미지화되고 심미화된 불교의 전형은 대형 서점에서 종교 관련 서적의 베스트셀러 자리를 도맡고 있는 일부 티베트불교나 라다, 무스탕 지역에 대한 관련 서적들에서도 발견된다. 티베트의 소년, 소녀들에 대한 낭만적이면서도 시적인 사진들은 불교에 대한 낭만적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몽롱하고 신비로운 필터를 통해 새롭게 찍은 듯한 사진들이 삽화로 실린 이런 대중적인 불교 관련 서적들을 대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오직 그곳만이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고, 우리가 일상의 생활로써 채택해야 할 대안이라면 우리 모두 그곳으로 가서 살아야만 하지 않을까? 경건하고 평화롭게만 보이는 불교 명상 서적들은 오히려 후기자본주의적으로 심미화된 불교만이 마치 참된 불교인 것처럼 집단적으로 오해하고 착각하게끔 하는 것이다.

불교인으로서 가지는 우리의 가치체계는 얼마나 불교적인가?

근대화의 이름으로 지극히 서구적이고 기독교적인 가치체계를 가지고 그것을 다시 투입시켜 불교를 해석하고 조직하고 있지는 않은가?

homo economicus(경제적인 인간)라는 냉소적 표현을 들지 않더라도 현대 사회에서 인간은 모든 것을 소비해 버린다. 실상 우리 스스로는 이러한 불교 상품화와 불교자본주의화에 대해 별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후기식민주의적 정서 속에서 대화와 관용의 유행 안에서 낭만적으로만 이해되었던 불교가 이제는 후기자본주의적 소비사회 속에서 소비되고만 있는 것이다.

한국의 지식인들과 불교인들 중 다수

는 아직도 민족주의적 열정만으로 서구화되고 근대화된 불교의 수출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있으며, 그 학문적, 이론적 정확성과 정직성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 마치 이탈리아의 피자가 미국에 건너가 ‘피자’라는 이름만 남기고 변형되어 미국의 다국적 기업에 의해 세계에 퍼졌던 것처럼 18세기 아래 서구 지식인들의 오리엔탈리즘의 낭만성에 의해 서구 사회에 수입된 불교는 서구적 사상과 형태로 재생산되어 새롭게 포장되어 다시 ‘역수입’ 되고 있다. 한편에서 일부 불교인들은 전통적인 한국 불교를 ‘부끄러워하면서’, 이렇게 서구화되어 역수입된 서구 불교의 형태야말로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애써 믿으려고 한다.

결국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기독교적인 문화와 경쟁하기 위해 고안되고 만들어진 서구 불교인들과 학자들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 이미지로서 조작되고 소비되고 있는 불교의 유행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을 현재의 우리에게도 절실히다. 불교학이라는 학문이 종교적 엄밀함과 정직성을 어기면서까지 만들어내는 소비 이데올로기와 이미지화는 서구 불교의 가장 큰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서구 사회와 같은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불교와 불교적 이미지를 바라보며 소비하는 대중들의 시선에 대한 유효한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 자유로운 주인이 된다는 것

혜정 / 사교과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의 노예에서 벗어나  
창조적 자유로운 주인 된 길로 나아가는 것이  
출가라면 나는 어떻게 그 길을 찾아 가고 있는지 …

절을 한다든지 염불, 간경, 참선 등으로 자기의 여건과 환경에 맞추어서 수행은 하지만, 한 마음 오롯이 해서 어느 하나를 퀘뚫어 마치기란 쉽지 않다.

강원에서 부처님과 조사스님의 말씀을 듣고 신심을 발하기도 하지만 격외도리의 계송 중 “궁극의 이치는 깨달은 자만이 알 수 있다”라는 의미의 글들을 접할 때면, 눈 뜨고 글은 보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내 자신에 공허함을 느끼기도 한다.

치문 때는 강원생활에서 익혀야 할 습의와 적응 등으로 마음의 여유가 없었고, 사집 때는 대 헤스님의 편지글을 보면서 ‘당장이라도 無자 화두만 잡고 나아가야 하나, 꼭 강원생활이 필요한가?’ 등등의 허망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메웠다. 사교가 되어 대내외적으로 크고 작은 행사를 치러 내느라 나날이 바쁘지만, 어쩌면 몸뚱이 바쁜 것보다 내 안의 마음이 망상으로 더 바쁠지도 모른다. 강원생활에 익숙해져서 삽발 출가시의 下心과 부지런함 대신에 분별심과 변명만 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던 중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란 책을 보게 되었다. 부처님의 사념처에 관한 내용으로 ‘신수심법(身受心法)’의 네 가지를 관찰 대상으로 해서 자비수관(慈悲手觀)이라는 방편을 써 올바르게 관찰해 자아의 진위를 가리고 바른 견해를 세워 苦를 해결하는데 의미를 둔다.’는 구절에서 귀에 익숙하던 사념처(四念處) 보다는 방편인 자비수관에 관심이 갔다.

공간과 시간적 제약이 있는 학인인지라 시간을 별도로 내기가 어려웠지만, 한번쯤 해 보고 싶다는 유혹을 이기기가 어려워 방학 중 자비선사에서 시행하는 초보자를 위한 수행일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자비선사는 아주 한적한 곳에 아담한 집을 운치 있게 개조해 자리하고 있었다. 불사 중이어서 어수선한 면도 있었지만 찾아드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좋은 기운이 느껴졌다.

수행일정은 마음먹기에 따라 몸이 반응하는 것을 알기 위해 몇 가지를 실행했고, 몸의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방편으로서 자비손을 만들어 자비수관을 한 시간씩 하고, 20분 정도 행선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먼저 자비경을 낭독 후 세상에서 가장 자비와 사랑이 가득한 손을 연상한다. 이때 관세음보살님손이나 할머니손 등 자비가 담긴 손이면 된다. 이렇게 자비손을 만들어 정수리 - 뺨 - 귀 - 뒷머리 - 허벅지 - 무릎 - 정강이 - 장딴지 - 발목 - 발등 - 발가락 순으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몸을 어루만지며 관한 후 발가락에서 다시 거꾸로 정수리까지 관해야 한 번의 자비수관이 끝이 난다. 이때 자비손이 몸에 닿을 때의 느낌에만 마냥 빠지게 되면 이 느낌은 의도적이기 때문에 느끼려 하면 할수록 자비수관법 자체에 짚증을 느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자비손을 연상해 관하는데 이 방법이 맞는지,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생겨서 지도 법사님께 계속 의심나는 것을 묻고 설명도 들으며 관하였다. 몸을 바르게 하고 앉아 정신을 집중해서 관하다 보니 가슴부위에서 통증이 느껴졌다. 또 시원한 느낌이 드는 부위도 있었고, 허리에서는 가슴과 또 다른 통증이 느껴졌다. 이렇게 몇 차례 자비수관과 행선을 하고 난 후 참가자 모두가 한 자리에 앉아서 지도스님께 점검받는 시간을 가졌다. 자비수관 중에 느꼈던 것을 진솔하게 수행일지에 기록해 제출하면 하나하나 점검해 주시는 것이었다. 조마조마하게 내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스님은 수행자의 길을 걷기 이전부터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통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원한 느낌이 있었던 건 우리 몸은 본래 지수

화풍공(地水火風空) 5대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 바람의 기운을 느낀 겁니다. 결국 우리 몸이 무상하다는 것은 이를 통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하며 또 스님은 물으신다. “허리를 다치신 적이 있나요?” “예전에 크게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크게 다친 곳이나 지금 병들어 있는 곳은 자비손이 지나가면 반드시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시며 아픈 곳일수록 자비심을 더욱 실어 어루만져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평소 화를 잘 내고 성격이 급하거나 과격한 사람은 자비손이 만들어 지지 않으며, 표현은 안 해도 속으로 증오심이나 원한을 품은 사람도 또한 자비손이 연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비수관을 어느 정도 한 사람 중에는 몸의 소멸, 나아가 마음의 소멸까지 경험한 이도 있었으며, 우울증을 치료한 사람, 자기의 오랜 습관 등을 고친 사람, 심지어는 불치병인 암도 치유되어 그곳에서 자원봉사로 활동하는 사람도 있었다.

작은 공간에서의 짧은 수행이었지만, 내 안에서 마음의 여유가 느껴지고, 자비의 기운이 주위로 퍼지는 것이 마치 나비효과와 같았다. 수행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뒤안길에서 늘 내가 있다는 것 때문에 내 몸이 무상함을 모르기에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이번 몸 관찰을 통해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다.

“몸을 바르게 보지 못한 사람은 감로의 맛을 보지 못하고,  
몸을 바르게 본 사람은 감로의 맛을 본다.” ♪

## 즐겨 사유해야 할 일

편집부

꽃씨 속에는  
파아란 잎이 하늘거린다.

꽃씨 속에는  
빠알가니 꽃도 피면서 있고

꽃씨 속에는  
노오란 나비 떼가 숨어 있다.

겨울이 되면 자연은 외부의 치장을 모두 버리고 가장 핵심적인 생명력만을 꽁꽁 안으로 거두어들인다. 그들의 푸르름에 혹은 울긋불긋한 모습에 반했던 이들도 겨울엔 그들을 외면한다. 그러나 이런 때에야 말로 우리들은 그들의 치열한 생명의 힘, 그들이 피워내고야 말 아름다운 세상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어릴 적에나 한번쯤 종알거리 보았을 동시에 새삼 떠올랐던 건 작고 보잘 것 없는 꽃씨 속에서 풍부한 그들의 본래 면목을 읽어낸 이의 안목이 부러웠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제, 이러한 시선을 우리 안으로 돌려보자.

『대승기신론』에서는 4가지 종류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세 가지는 누구나 흔히 떠올릴 수 있듯이 불·법·승 삼보에 대한 믿음이다. 그렇다면 한 가지는 무엇인가? 대승기신론에서는 삼보에 대한 믿음보다 선행되어야 할 믿음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근본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였다.

여래장, 참나, 진여, 본래면목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는 근본은 바로 나 자신을 비롯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본래는 맑고 밝고 어질고 너그럽고 굳세고 바르고 능력 있는 지성의 소유자라는 것, 즉 부처님의 성품을 본래 갖추고 있어 씨앗처럼 늘 내 안에서 싹이 틀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깨달음의 경지에서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본래부터 부처님의 고결하고 자비로운 성품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사무치게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수행의 과정에서 이러한 근본에 대한 믿음을 늘 즐겨 사유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땅 밑 깊숙한 곳 어둠에 묻혀 있는 식물의 싹은 미세한 틈새로 새어드는 한 줄기 빛을 향해서 기어 나오기 시작한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깊이 잠들어 있는 고결한 성품의 씨앗은 우리가 늘 즐겨 사유하고 발견해 나가는 믿음의 작은 빛줄기를 의지해 싹을 틔워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믿음 없이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스님들께 예경한다는 것은 결국 외부의 대상 경계에 대한 집착일 뿐이다.

즐겨 사유하는 힘을 통해 가지가지 차별된 현상 속에 유유히 흐르는 평등한 근본 자리를 깨닫게 되면, 삶과 세계의 진실성 및 아름다움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고, 그 근본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비로소 진정한 무소유와 겸손의 삶을 일구어낸다. 자신 안에, 모든 생명 안에 그 자체로 빛나는 성품과 지혜가 깃들어 있으니 굳이 외부의 허식으로 자신을 더 채울 필요가 없다. 또한 그 맑고 어진 모습 앞에서 저절로 감화되고 겸허해지므로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커지는 만큼 일체 생명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도 자라나 만물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다.

화 낼 일도, 미워할 일도, 시비할 일도, 차별할 일도 그 빛나는 성품 앞에서 자연스레 녹아들 뿐이다.

우리가 부정한다 해도 그 맑고 어질음의 씨앗은 늘 발아의 시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지금 여기 자신이 서 있는 이 곳, 이 시간에 본래의 마음이 남김없이 발휘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래의 맑고 어진 자리를 드러내지 못하는 수행은 자신을 치장하는 요란한 치장물로 전락해 버린다는 것을 명심하자.

꽃씨를 심으면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것임을, 알에선 언젠가 푸른 창공을 자유롭게 날아다닐 새가 깜질을 깨고 나올 것임을 의심할 것인가?

‘넓고 넓은 들판에서 흙을 파는 부처님들  
우렁찬 공장에서 땀 흘리는 부처님들  
자욱한 먼지 속을 오고 가는 부처님들  
고요한 교실에서 공부하는 부처님들  
물속에서 헤엄치는 귀여운 부처님들  
허공을 훨훨 나는 활발한 부처님들  
눈을 떠도 부처님, 눈을 감아도 부처님’\*

이 세상 모든 부처님께 가만히 두 손 모아 봅니다. ●

(\*은 1986년 부처님오신 날 성철 스님 법어 '천지는 한 뿌리'를 일부 인용한 것입니다.)



## 운·문·소·식

- 12월 3일 화계사 조실 설정큰스님의 동안거 결제법문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12월 4일 개학 공사 및 결제 제사가 청풍료와 대웅전에서 각각 있었습니다.
- 12월 15일 2006년도 동화사 종무지도 감사에서 운문사가 우수사찰로 선정되어 표창 받았습니다.
- 12월 16일 긴송미술관 최원수 연구 실장님의 '한국 불상의 원류를 찾아서' 특강이 있었습니다.
- 12월 17일 오백전 벽일기도 회향에 학장스님의 법문이 있었습니다.
- 12월 19일 ~ 23일 동지행사로 4박 5일간 임시 휴강하였습니다.
- 12월 25일 사교반 스님들의 강정만들기 울력이 있었습니다.
- 12월 26일 조계종 교육원에서 주최한 제2회 전국 승가대학 학인 논문 공모전에서 사교반 정문스님이 은상을 받았습니다.
- 12월 27일 3차 간염집종이 있었습니다.
- 1월 3일 강주 스님과 화엄반 스님 15명이 대구 '자비의 집' 무료급식소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 1월 5일 학인스님들의 겨울철 차례법문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1월 12일 겨울철 포살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1월 13일 중요무형문화재 제107호 누비장 김해자님의 '누더기가 누비되다' 특강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1월 22일 ~ 24일 호진스님의 '불교와 세계종교'에 관한 특강이 청풍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 1월 26일 성도제일을 맞아 대중스님들의 철야정진이 있을 예정입니다.
- 2월 1일 대교반 스님들의 졸업송별회 및 사온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 2월 2일 승가대학 제43회(65명) 졸업식, 승가대학원 제9회(2명) 졸업식 및 제5회 전강식이 대웅보전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이날 전강 받을 스님은 효탄·일진·명법·법장 스님입니다.
- 2월 6일 40일간 겨울방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 2월 7일 신입생 입학시험에 오전 7시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 도와주신 분

- |           |           |            |           |
|-----------|-----------|------------|-----------|
| • 원철 스님   | • 응찬 스님   | • 삼신사 주지스님 | • 김원석 불자님 |
| • 조용현 교수님 | • 정해환 불자님 | • 서상도 불자님  | • 최현수 불자님 |
| • 최상희 불자님 | • 이기태 불자님 | • 강옥자 불자님  | • 박재록 불자님 |
| • 추두엽 불자님 | • 이화진 불자님 |            |           |

\*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그동안 『雲門』誌 편집장을 맡아주신 법안스님, 사진담당 윤호스님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겨울호부터 편집장에 경식스님, 사진은 우연스님이 담당하겠습니다.

\* 『雲門』誌 발간에 도움을 주실 분은 아래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체국 701839-01-000335, 예금주 : 운문편집실)

\* 주소가 변경된 분은 편집실로 연락 주십시오. ☎ 054) 372-8834 (FAX 검용)



본 승가대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입학 시험 공고

- ❖ 자 격 : 1. 2006년 가을 수계자까지(행자교육 31기 이전)  
2. 타 승가대학인 경우 1년 이상 휴학한 스님
- ❖ 모집인원 : 사미니파 00명
- ❖ 시험과목 : 면접, 사미니율의, 불교 기초교리, 초발심자경문, 불교의식
- ❖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 대학 소정 양식) 2. 은사스님 추천서  
3. 본인 사미니증(승려증) 사본 및 은사스님 승려증 사본  
4. 본인 법명 도장 및 반명함판 사진(장삼·만의착용)2매  
5. 건강진단서(보건소 제외) 및 최종학력 증명서
- ❖ 준비물 : 만의, 장삼, 사미니증(승려증), 필기도구  
(복장은 반드시 사미니 의제 착용, 구죽계 수지자는 제외)
- ❖ 도착일시 : 2007년 2월 6일(음력 12월 19일) 오후 4시까지
- ❖ 시험일시 : 2007년 2월 7일(음력 12월 20일) 오전 7시
- ❖ 교통편 : 대구 남부버스 정류장에서 오전 7시 ~ 오후 7시 수시운행  
(운행간격 1시간)

\* 사전 전화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도착 순서대로 접수)

운문승가대학장 명 성

### 대학원생 모집 공고 – 수의과(연구과정)

- ❖ 모집대상 : 승가대학 졸업자
- ❖ 모집인원 : 약간명
- ❖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 대학 소정양식 1부) 2. 자필이력서 1부  
3. 승가대학 졸업증명서 1부 4. 반명함판 사진 3매
- ❖ 전형방법 : 서류심사, 면접 및 필기시험
- ❖ 전형일시 : 2007년 2월 6일(음력 12월 19일) 오후 2시
- ❖ 연구기간 : 2년(이력 재독 및 그 외 수의 과목)

\* 입학시험 및 대학원생 모집 공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054-372-8800, 370-7100)와 운문사 홈페이지([www.unmunsa.or.kr](http://www.unmunsa.or.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운문승가대학원장 명 성

